

일상속

운동실천법 스포츠7330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매일 조금씩, 스포츠 7330으로 생활속에서 건강을 지키세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씩! 대한민국이 건강해 집니다.

Let's walk together!



www.sports.busan.kr
2019 05+06

/ Vol. 19

파워 인터뷰

부산광역시카누연맹 송순임 회장
부산시설공단 강재원 감독

이달의 이슈

스포츠인권교육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이달의 스포츠

배드민턴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부산체육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19 05+06 / Vol.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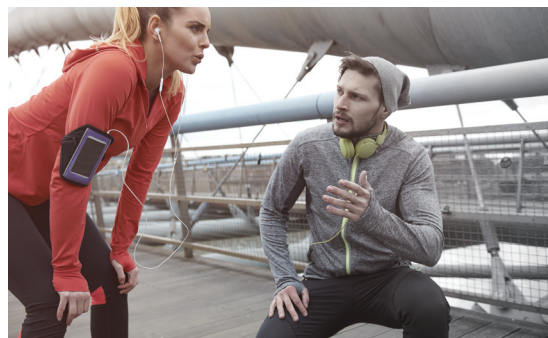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5월 31일(격월간, 비매품, 통권 제19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편집인 김동준 편집·취재 최유식, 문찬식, 김성무, 하나근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T. 051-500-7900)
디자인·기획 대훈기획(T. 051-898-0330)



04



08



17



26



27

52



60

COVER STORY



생활 밀착형 스포츠, 배드민턴. 새처럼 날아가는 셔틀콕이, 때로는 쓴살 같이 바람을 가르고 때로는 눈송이처럼 하늘하늘 춤을 춘다.

사람과 사람

- 04 파워인터뷰 I 부산광역시스키누연맹 송순임 회장
- 08 파워인터뷰 II 부산시설공단 강재원 감독

특집

- 12 전 연령대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 17 스포츠윤리의 현재와 미래

포커스

- 20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이달의 이슈

- 22 스포츠인권교육
- 24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스포츠 속으로

- 26 2020 도쿄올림픽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부산체육의 발자취

- 30 전국체육대회 부산 개최와 부산시체육회의 성장

부산의 스포츠 소식

- 32 2019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워크숍 개최
- 33 부산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 34 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
- 35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36 제14회 어르신체육대회
- 37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38 부산국민체육센터
- 40 북구국민체육센터

- 42 영도국민체육센터
- 45 강서구국민체육센터
- 46 구·군체육회
- 50 회원종목단체
- 52 부산공공스포츠클럽

스포츠 뉴스

- 53 스포츠 뉴스
- 58 스트레스의 과거와 현재

이달의 스포츠

- 60 배드민턴

문화 속으로

- 65 책

물이 있는 곳에 배를 띄우자

카누의 메카, 부산을 위한 도전

INTERVIEW+01

부산광역시카누연맹 송순임 회장

‘물이 있는 곳에 배를 띄우자’ 이는 2년 전 부산광역시카누연맹 송순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카누 종목의 슬로건이다.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은 부산. 그러나 카누는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생소한 종목이다. 하지만 부산 카누는 나가는 전국 대회마다 종합 우승을 쓸어 담고 있을 정도로 이미 전국 탑이다. 송순임 회장 취임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르다. 선수들의 탁월한 실력과 그녀의 열정이 만났기 때문이다. 요즘 어딜 가나 ‘카누!’를 외치고 있는 송순임 회장. 바다로 둘러싸인 부산을 카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그녀의 고군분투는 부산체육계에선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Busan Canoe

Q 먼저 카누가 정확히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설명 드리면, 카누는 길쭉하고 선두와 선미가 뾰족한 배를 타고 패들(paddle : 노)로 배를 저어 스피드를 겨루는 수상경기입니다. 강이나 호수, 댐 등 흐름이 잔잔한 곳에서 주로 하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뱃놀이’입니다. 배를 강에 띄워놓고 놀거나, 또 옛날에는 강을 건너는 생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카누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종목입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스포츠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카누입니다.



Q 현재 부산의 카누 인구 및 환경은 어떤가요?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으로 구분했을 때는 카누는 선수 육성과 경기 위주의 전문체육 위주였는데요. 그런데 통합 후 생활체육 쪽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부산의 카누 인구는 엘리트선수가 총 30여 명 있고, 동호인 수도 그 정도 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매년 그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마다 서낙동강에서 카누 시민체험교실을 열고 있는데 참가자가 1천여 명에 달합니다.

Q 그 전에도 카누 종목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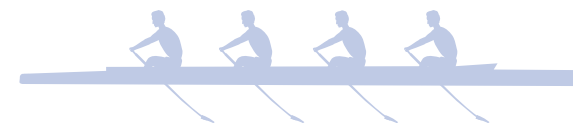
사실 카누란 종목에 대해선 전혀 몰랐습니다. 실제로 저는 체육하고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시의원 시

절에 선출직임에도 시의회 상임분과 중 유독 체육에는 소홀했다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산시체육회 최명희 부회장님께서 카누 회장직에 추천을 해주셔서 덜컥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명인지, 말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제 눈에 ‘바다와 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산이 다 그렇잖아요. 주변이 바다와 강인데, 자세히 보니까 다 텅텅 비어있는 거죠. 왜 바다와 강이 비었을까? 카누연맹 회장이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배를 띄우자’ 싶었죠.

Q 회장님 취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우선 앞서 말한 슬로건을 정하고, 기량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카누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벌써 조금의 성과가 보이는데요. 첫째,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 드래곤보트 종목 남북 단일팀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메달을 획득했고, K4 종목에서는 은메달을 땀습니다. 둘째, 현재 카누 지도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2명을 더 지도자로 지정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셋째, 카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아카데미교실과 또 동호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단시간에 이렇게 성과를 낸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일을 맡으면 아주 열성적이고 ‘애살’을 가지고 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간 카누연맹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 보니 선수들도 다 운대 있었는데, 제가 맡고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선수들 밥도 자주 사주면서 격려하고, 이사회도 활성화 시키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 이게 이심전심으로 선수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고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Q 연맹 회장이라면 선수들이 어려워할 법도 한데 어떤가요?

수시로 경기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낙동강에서 훈련을 자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시간 날 땐 슬쩍 가서 밥도 먹이곤 해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런 애뜻한 관심을 못 받아서인지 선수들이 감동하더라고요. 제가 엄마처럼 대해주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의지를 하는 편이에요. 국제대회 나갔을 땐 일부러 전화해서 성적

이 이렇다고 알려도 주고, 선물도 사와서 안겨주고 해요. 우리 체육계에 여성들이 많이 오셔서 지원하면 여성 특유의 케어가 되어 훨씬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오랜 기간 카누를 지켜보고 계신데, 카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요즘 ‘소확행’, ‘워라밸’이라는 말도 생겨나듯이 많은 분들이 삶의 행복을 여유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레저를 원하는 이들이 근교로 떠나는데 저는 자연과 더불어 즐기기에 카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누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잔잔한 수면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역동적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누를 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자연이다 보니까, 그곳에서의 탁 트인 경관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Q 이렇게 카누의 매력에 흠뻑 빠진 회장님을 보고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카누, 카누 하고 다니니까 처음엔 다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저 보고 팔방미인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는 체육까지 하나?’ 하며 웃으시죠. 처음에 강서구청 유원대 감독도 내가 카누연맹 회장이 된다는까 ‘뜨악’한 표정이었어요. 과연 비체육인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나, 마뜩찮게 보더라고. 그런데 선수 훈련은 지도자들이 하지만, 나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잖아요. 부산에 카누가 왜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 카누가 왜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제가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다 보니 서로 상호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적으로 저를 신뢰합니다.

Q 취임 전에 교육, 문화, 예술, 정치 등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원래 어릴 적 꿈은 성악가였고 지금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부산시립합창단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극도 하고 있어요. 70년대 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매년 ‘신의 아그네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아동문학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원래 전공은 유아교육이고, 1984년에 유치원을 개관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부산 남구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2010년에는 무소속으로 부산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부산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Q 지금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굳이 꼽자면 타고난 기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기질이 뭐든 열심히 하는 성격이고, 또 제 이름대로 살더라고요. ‘송순임’, 이름처럼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순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부모한테 받은 재능을 쓰면서 나도 즐겁고 남도 즐거우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Q 오는 10월, 카누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회입니까?

‘전국레이싱카누대회’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우리 부산의 브랜드에 걸맞게 개최하려고 해요. 수영강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부산국제영화제 부대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Q 카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부산하면 카누가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생각인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카누가 필요한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 ‘꿈자람 카누학교’와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생생 시민카누교실’, 그리고 장애우를 위한 ‘물빛 카누학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카누를 보다 많은 대중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자연과 더불어 여유를 즐기기에 카누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에서의 탁 트인 경관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

Profile

송순임 프로필

- 現 부산광역시카누연맹 회장
- 現 부산 대천유치원 이사장
- 現 소극장 다솜아트홀 대표
-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제5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 부산시 문화예술위원
- 부산문화재단 자문위원
-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외래강사
-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 부산 극단 <전위무대> 단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다시 한 번 우생순!

Busan Handball

창단 후 첫 통합우승 부산 핸드볼의 역사를 다시 쓰다

INTERVIEW+02

부산시설공단 강재원 감독

국내 최대 핸드볼 축제인 핸드볼리 그는 지난해부터 시기를 옮겨 겨울 대표 스포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협회는 과감한 팬 친화 정책과 룰 변화를 통해 배구, 농구에 버금가는 인기스포츠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핸드볼 강국인 유럽 시즌과 시기를 맞춰 한국 핸드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이에 발맞춰 여자부는 시즌 내내 치열한 선두 경쟁으로 흥미를 끌었다. 종목 부흥을 향한 전환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주인공은 ‘부산시설공단’으로 창단 이후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부산시설공단. 한마음이 이뤄낸 통합우승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4월 22일 서울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18~2019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에 27-20으로 승리했다. 에이스 류은희가 전반 초반부터 다득점과 뛰어난 경기 조율로 리드를 이끌었다. 이미경도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지원했다. 골키퍼 주희는 세이브 12개를 기록하며 철벽 방어를 해냈다. 부산시설공단은 정규 시즌에서 16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챔프전에서도 업셋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4년 부산시설공단 사령탑에 오른 강재원 감독은 취임 5년 만에 팀을 리그 정상으로 이끌었다. 강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통합우승을 목표로 내달렸는데 선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목표를 이뤄줬다”며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지만, 그러나 이번 시즌은 강 감독에게 “최고의 순간, 최고의 시즌이었지만 핸드볼 지도자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리그”였다. “모든 매스컴에서 우리 팀을 어벤져스라고 했다. 선수들의 재능이나 명성을 봤을 때 충분히 우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담감을 떨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한 강 감독은 “선수들에게 편하게 경기할 것을 요구하며 1골로 이기든 10골로 이기든 이기는 데만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여기에 각 포지션마다 실력 있는 선수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을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는다. “골프나 배드민턴 같은 퍼스널 스포츠면 혼자만 잘하면 되지만, 핸드볼은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한데 선수들이 아주 잘해줬다. 짧은 시간에 선수들이 한 몸이 됐고, 열정적인 응원이 뒷받침해줘서 우승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핸드볼은 팀 스포츠라서
하나로 묶는 게 중요한데
짧은 시간에 선수들이 한 몸이 됐고,
열정적인 응원이 뒷받침해줘서
우승이 가능했다.



올림픽대회 인연으로 맺어진 어벤져스 팀

실제 부산시설공단은 올 시즌을 앞두고 국가대표 핵심선수들인 라이트백 류은희, 레프트백 심해인, 센터백 권한나까지 줄줄이 영입하면서 시즌 내내 ‘어벤져스’로 불렸다. 이미경은 시즌 중반 가세했다. 2016 시즌 베스트 7(센터백)에 선정될 만큼 뛰어난 선수로 이번에 일본리그에서 활약하던 중에 곧바로 합류했다.

이렇게 화려한 전력의 선수들을 한 팀에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답은 오랜 인연이 만들어낸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강 감독은 “우리 팀이 예산도 적은데 사람들이 의아해한다. 왜 다 부산시설공단으로 오려고 하지?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다들 모일 수 있지? 나 보고 꺾어서 온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선수들과의 인연을 풀어놓는다. 2010년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강재원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었다고 한다. 당시 영화 속 주인공으로 알려진 ‘우생순’ 멤버들이 전부 그만뒀을 때라 젊은 세대로 교체해 선발한 선수들이 지금 함께 있는 주희, 류은희, 심해인, 권한나, 이미경 선수였다. 그때부터 믿고 따랐던 선수들은 실업 규정에 따라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강 감독이 러브콜을 보냈을 때 먼 길 마다 않고 부산으로 달려와 줬다. 실제로 이들 중에 부산이 고향인 이들은 없다. 강 감독 역시 경기도 출신으로 그 전까지는 부산과 연이 없었다.

한국 핸드볼의 레전드. 강재원 감독

최고의 지도자로 주목 받고 있는 강재원 감독, 그의 선수 시절은 더욱 화려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몸이 허약해 부모님의 권유로 처음 시작했다는 핸드볼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말 그대로 그는 대한민국 핸드볼의 산 역사가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에 발탁, 이듬해 82년 뉴델리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88서울올림픽대회의 한 장면을 꼽았다. “조별리그에서 동독을 꼭 이겨야 했는데, 여기서 지면 붙어야 하는 상대가 당시 최고의 팀인 유고슬라비아였다. 동독과 우리와의 마지막 파이널, 후반 15초를 남기고 동점인 상황에서 우리 공격에 제가 마지막 골을 넣었다. 8초를 남겨둔 역전골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멋진 골로 찬사를 받았다.”는 강 감독. 당시 그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다. 88서울올림픽대회에서 은메달의 주역으로 득점왕에 이어 MVP를 받았고, 89년에는 세계MVP를 수상했다. 그리고 90년과 92년, 95년에는 세계베스트 7에 올랐다. 그는 올림픽대회에 3번 참가해 은메달을 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도 두 번이나 획득했다.

올림픽대회 이후 89년 유럽으로 진출해 프로생활을 11년간 지속한 강재원 감독. 1990년에는 스위스 핸드볼리그 득점왕도 차지했다. 유럽 현지에서 그는 ‘아시아의 마라도나’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스타 선수에서 스타 지도자로 변신

지도자 생활도 화려하다. 99년 선수 생활을 마치고, 미국 여자대표팀(1999년), 스위스 파디 빈터투어팀(1999-2001), 일본 다이도스틸팀(2005-2007), 중국 여자대표팀(2007-2008) 감독으로 활동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2008년에는 여자국가대표팀을, 2012런던올림픽대회에서는 남자국가대표팀을 맡았으며, 현재도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감독을 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실업팀 감독을 맡았을 때는 2년 동안 전승, 59연승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부산에서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5년 전, 88서울올림픽대회 당시 함께 경기를 뛰었던 선배인 부산시핸드볼 협회 이상호 부회장으로부터 부산으로 오라는 제의를 받았다. 그런데 와서 보니 팀 사정이 아주 어려웠다. 선수들 수준도 실업팀 선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강 감독은 “첫해 와서 리그 시작 전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팀 목표는 2승이라고 했다. 실제로 2승을 했다.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5년 뒤 올해는 챔피언까지 22승을 했다.”고 말했다.

흔히, ‘스타 선수 출신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강재원 감독은 이런 통념을 보기 좋게 뒤집었다. 팀의 성적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특별한 훈련 덕분이다. “유럽 스타일의 훈련을 한다. 지금도 한국 지도자들은 70-80년대 핸드볼을 많이 가르치는데 저는 룰 7개를 정해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주기를 선수에게 주문한다. 예를 들면, 1시간 이든 2시간이든 훈련을 할 때는 딴 생각 말고 자신한테 집중하라는 것이다.”라는 강 감독은 룰만 지킨다면 다른 것은 선수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 준다고 한다. 또한, 트레이닝 방법도 공을 이용하여 체력 훈련을 많이 하는 시스템이다. 공 없이 뛰기만 하는 훈련은 하지 않는 편이다.

도쿄올림픽대회에서 우생순의 신화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대회. 강재원 감독은 9월로 다가온 중국과의 예선전을 앞두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 중국은 리그도 접고 우리를 이기려고 1년을 유럽에서 전지훈련 하고 있다. 우리는 리그를 마친 상황에서 다친 선수들 재활도 해야 하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한다면 메달권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는 그는 이번 대표팀을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 멤버 70%와 젊은 선수 30%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2004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선전 끝에 은메달을 딴 여자핸드볼 대표팀의 이야기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큰 관심을 받았다. 이제 ‘우생순’은 핸드볼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었다. 당시 방송사 해설을 맡은 강재원 감독은 영화에도 깜짝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말 그대로 ‘순간’이다. 평소 핸드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올림픽대회 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싸늘하다. 그들이 도쿄올림픽대회에서 또 다른 스토리를 써주기 바란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야 한다.

Profile

강재원 프로필



- 1981 최연소 핸드볼 국가대표 발탁
- 1982 New Deli 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 1988 서울올림픽대회 은메달, 득점왕
- 1989 세계 핸드볼 선정 세계최우수선수 World Best 7
- 1990 Swiss 리그 우승, 최우수 선수, 최고득점상
- 2007. 1 ~ 2008. 12 중국 여자핸드볼 대표팀 감독 / 올림픽대회 5위
- 2010. 11 ~ 2012. 11 대한민국 여자핸드볼 감독 / 올림픽대회 4위
- 現 대한민국 여자핸드볼 국가대표팀 감독



SPECIAL + 01

부산광역시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젊은 성인의 건강수준 현황

전 연령대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동아대학교 건강관리학과
염창홍 교수

초고령화 도시 부산, 건강관리의 필요성 제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전체 인구 5,144만 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3.8%인 707만 명, 2018년 14.3%, 2060년 41.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전국 주요 도시 중 부산시의 고령화지수는 전국 평균인 99.5%를 넘어서는 134.3%로 가장 ‘고령화된 도시’로 조사되었다.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전과 소득수준의 증가는 기대수명 뿐 아니라 건강수명의 증가, 그로 인한 기존의 건강관리 트렌드를 ‘치료중심’의 관점에서 ‘예방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비단 질병을 가진 환자 혹은 고령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의 예방을 통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6년 10년간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 여성의 폭음 및 흡연을 증가, 아침식사 결식 증가하는 반면에 걷기 활동량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젊은 성인들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군과 비교 시 금연, 절주, 신체활동에 대한 관리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젊은 성인군의 스트레스 수준 증가, 수면의 질 감소, 영양 섭취 불균형, 비만을 증가, 만성 질환 발생률 증가 등과 함께 젊은 성인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미래 국가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30대 젊은 성인 ...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왜 젊은 성인들은 타 연령대에 비해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일까?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성인들은 타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Kessler et al., 2005), 이러한 이유는 젊은 성인들이 학업, 경력, 구직활동, 결혼, 생존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

오경희, 2019; 장지혜 & 김정호, 2017; 한금선, 2005). 이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젊은 성인들이 젊어져 나가야 할 만국공통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좋지 않은 생활패턴과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 성인들은 건강 악화나 질병과 관련된 심각한 증상이 상대적으로 고령자에 비하여 다소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한금선, 2005).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신체적, 환경적, 기능적 특성에 따른 객관적인 건강 수준은 정량화 되거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근거는 미약하다.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초석 마련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육성추진 사업인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을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내 첨단의료산업과와 부산테크노파크 헬스케어기술단 내 건강체육지원센터의 지원 하에 진행하고 있다(2017년~2019년 12월). 본 사업의 목적은 부산 지역 내 의료기관, 대학교, 기타 기업들이 참여를 통한 건강데이터(보행검사 기반 동적데이터, 질환정보, 신체적, 환경적, 기능적 특성 정보 등) DB 구축, 나아가 진료 과목별 환자의 특성 분석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건강한 대상자들의 특성 분석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빅 데이터 기반 건강수준 예측 모델의 초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광역시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1차년도)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참여를 통하여 내원환자들의 건강데이터 3,000명 및 20-30대 건강한 성인 1,500명 총 4,500여 명 건강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2차년도)에는 내원환자들의 건강데이터 4,000명 및 전 연령대 건강한 성인 1,500명 총 5,500여 명

의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내 첨단의료산업과와 부산테크노파크 헬스케어기술단 내 건강체육지원센터의 지원 사업 결과는 스마트시티 형성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다이나믹 부산광역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2018년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 활동 사진>



▲ 2018년 영도국민체육센터 파견



▲ 2018년 북구국민체육센터 파견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 :

데이터 기반 20-30대 젊은 성인들의 건강데이터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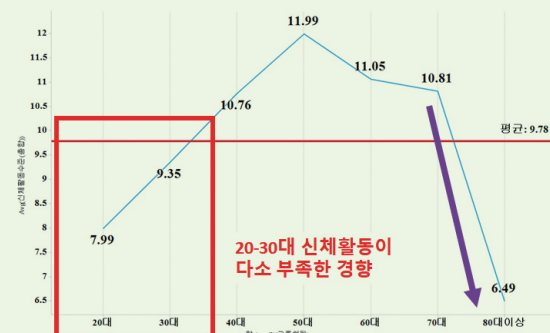
건강데이터 특성 : 연령에 따른 보행분석 기반 동적균형능력 특성

보행분석 기반 동적균형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보행 속도, 스트라이드 길이(발과 발 사이의 거리), 보행 불균형 지수(Gait asymmetry) 등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보행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주로 활용되는 보행속도와 스트라이드 길이의 경우, 남성은 40대부터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보행속도는 70대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으며, 스트라이드 길이는 5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다가 70대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보행 시 좌우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행 불균형 지수는 남녀 공통적으로 70대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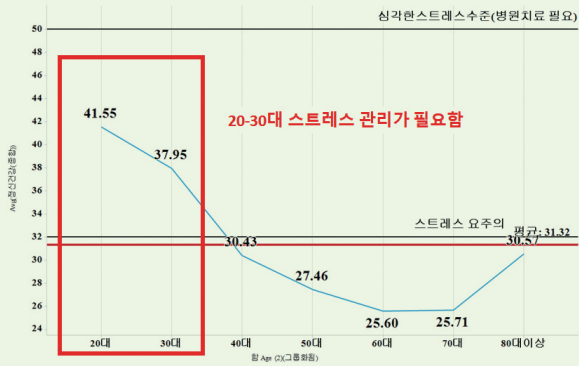
건강데이터 특성 : 연령에 따른 신체적, 환경적, 기능적 특성

신체적, 환경적, 기능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체활동 빈도(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 short version, (IPAQ research committee, 2005)), 스트레스 수준(Modified stress inventory response(최승미, 강태영, & 우종민, 2006), 불면증 수준(Insomnia severity index, ISI(Bastien, Vallières, & Morin, 2001) 검사 등을 분석하였다. 우선 신체활동 빈도의 경우, 20-30대와 80대 이상이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20대, 40대, 80대 이상이 해당되며 여성의 경우는 20-30대 80대 이상이 평균빈도에 비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트레스 요주의 수준에 기준하여(※32~49점, 50점 이상은 전문적인 상담 필요) 20-30대는 스트레스 수준이 32점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32점 이하로 확인되었다. 특히 남성은 20-40대가 해당되었으며, 여성은 20-30대가 32점 이상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20-30대 젊은 성인들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 수준은 불면증 경증수준에 20대가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여성은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14점 불면증 위험, 15점 이상 불면증 경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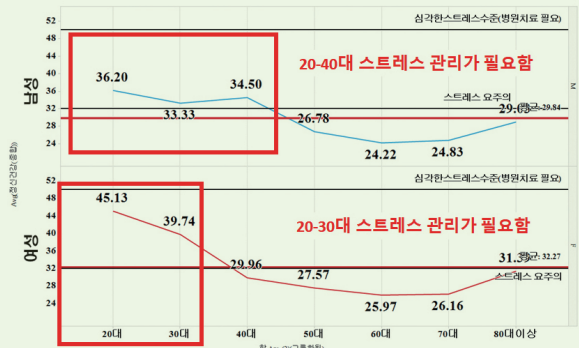
<전 연령대 신체활동 빈도(IPAQ)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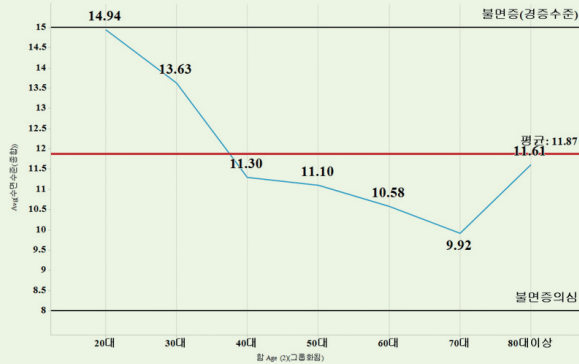
<전 연령대 스트레스 및 불면증 수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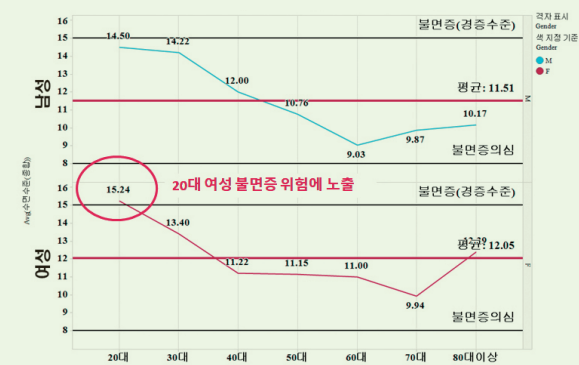
▲ 전체 대상자 스트레스 수준(점수)



▲ 성별 스트레스 수준(점수)



▲ 전체 대상자 불면증 수준(점수)



▲ 성별 불면증 수준(점수)

20-30대 건강데이터 세부 특성 : 2017년 결과기반(n=1,5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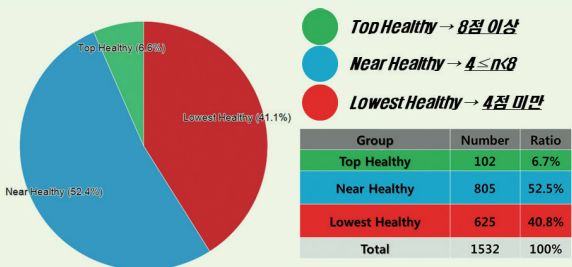
2017년 모집된 20-30대 성인 1,532명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보행분석 기반 동적균형능력 검사를 통해 건강점수(Health score)를 산출하였으며, 건강점수는 동적균형검사를 통해 산출된 모든 변수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차원축소 및 다양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 총 7가지 건강지표로 3가지 건강적합도 지수(근육, 관절, 신경 적합도 등)와 4가지 질환증상지수(심혈관계, 전정기관, 근골격계, 뇌신경계 등)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점수는 총 10점 만점이며, 8점 이상은 ‘Top healthy(매우 건강함)’, ‘4~7점은 Near healthy(보통수준 건강)’, 그리고 4점 미만은 ‘Lowest healthy(낮은 수준 건강)’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는 1,532명의 20-30대 성인들을 건강점수에 근거하여 앞서 언급한 Top/Near/Lowest healthy 3가지 그룹으로 세분화해 보았다. 그 결과, 매우 건강한 수준을 나타내는 ‘Top’ 그룹은 전체 1,532명 중 102명(6.7%)만 해당되었다. 보통 수준을 나타내는 ‘Near’ 그룹은 총 805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52.5%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낮은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Lowest’ 그룹은 총 62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의 40.8%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점수(Health score)의 정의>

동적균형검사로부터 산출된 총 7가지 Healthy Index			
Index	표시	만점 (점수)	※ 3가지 건강적합도
1. 생리 적합도 YES	PhysioFIT	2	
2. 관절 적합도 YES	JointFIT	2	
3. 신경 적합도 YES	NeuroFIT	2	
4. 심혈관계 의심 NO	Cardiovascular	1	※ 4가지 증상지수
5. 전정기관 의심 NO	Vestibular	1	
6. 근골격계 의심 NO	Musculoskeletal	1	
7. 뇌신경계 의심 NO	Neurological	1	
총 점수		10	

▲ 건강점수를 구성하는 세부 건강지표



▲ 건강점수에 따른 그룹별 구성인원

건강점수에 근거한 3가지 그룹의 건강데이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3가지 건강적합도 지수인 근육, 관절, 신경적합도 특성(※ 100점 만점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질환자들(치매·파킨슨, 전정계 이상, 비만·당뇨, 요통 등)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20-30대 성인 Lowest 그룹은 3가지 건강적합도의 점수가 일부 질환자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신경적합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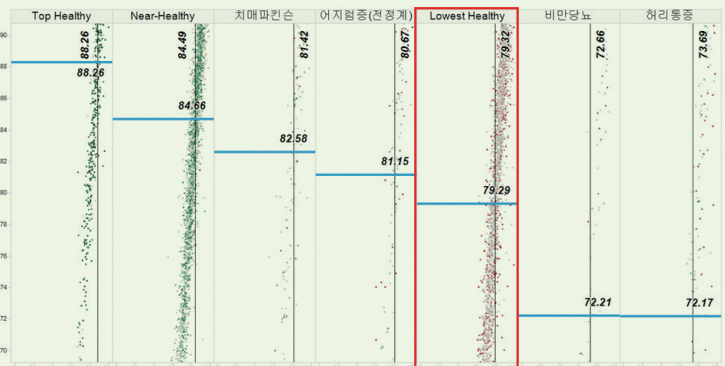
또한, 신체활동 수준, 식생활습관,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된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건강점수가 Lowest에서 Top 수준으로 갈수록, 신체활동 빈도가 높으며, 긍정적인 식습관 패턴이 나타나며,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특별한 질환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소된 동적균형능력과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20-30대의 건강수준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데이터 특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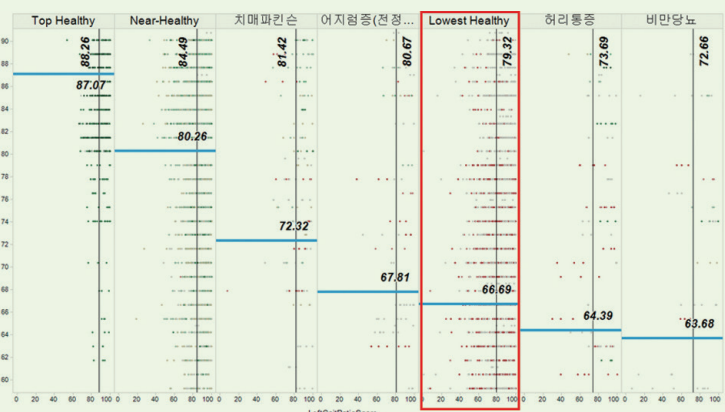
2017~2018년 데이터 결과 요약

전체 연령에 따른 데이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남성의 경우 40-50대에 급격한 보행능력의 감소가 나타나며, 여성의 경우는 70대 이후부터 급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녀 공통으로 70대 이후부터 보행 불균형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30대의 경우 보행능력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타 연령대에 비하여 신체활동 빈도가 낮으며, 스트레스와 불면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20-30대를 대상으로 건강점수 기반 3가지 수준으로 분류 후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건강수준이 나쁜 ‘Lowest healthy’는 전체의 40.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Lowest’에 해당되는 대상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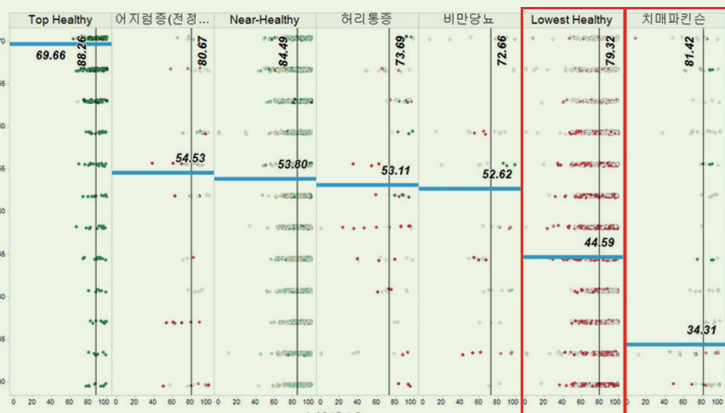
3가지 건강적합도 점수 비교



▲ 근육 적합도 점수 비교



▲ 관절 적합도 점수 비교



▲ 신경 적합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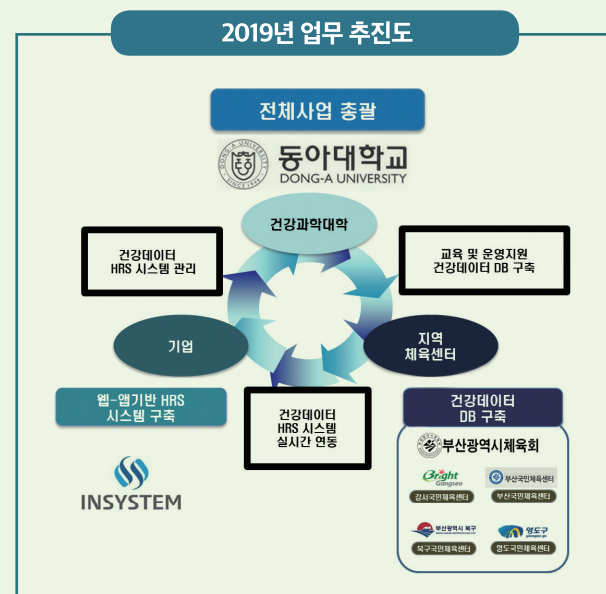
은 낮은 수준의 동적균형능력이 확인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현재 뚜렷한 건강악화나 혹은 질병과 관련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재적인 질병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건강관리의 필요성은 중·고령자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성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점을 건강

데이터 유효성 검증 사업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가 전 연령대에 걸쳐 도입됨으로써 건강수명 증대를 통한 전반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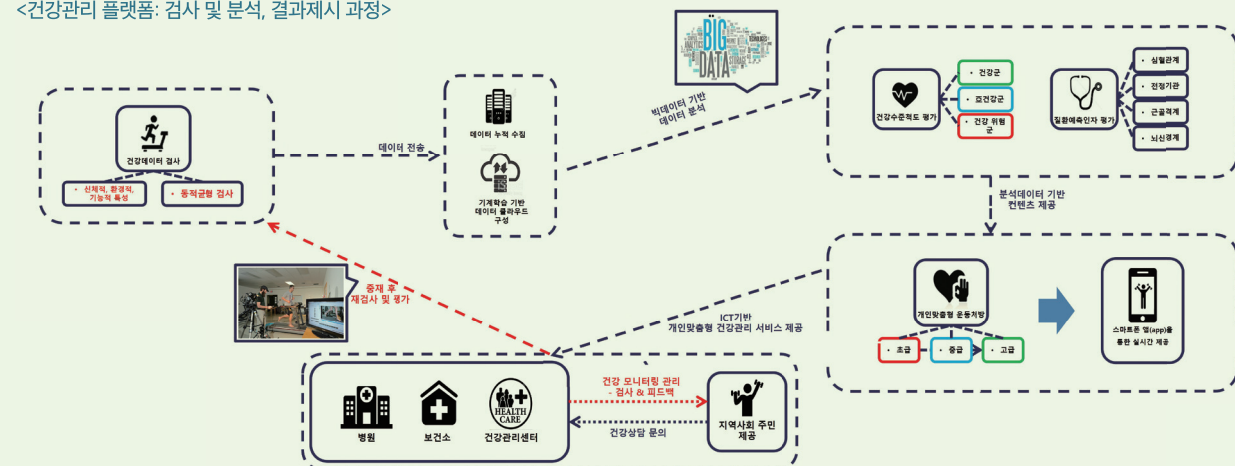
2019년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 지원사업 :
향후 부산광역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에 기여

2019년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은 현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3

<2019년 건강데이터 유효성 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
동아대학교 주관 업무 추진도>



<건강관리 플랫폼: 검사 및 분석, 결과제시 과정>



개의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 해당년도의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국민체육센터(강서구국민체육센터, 부산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영도국민체육센터) 4곳과 협력하여 12,000명의 대상자모집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건강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17~2019년까지 총 3년간 약 15,000명의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축한 건강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건강수준평가 표준범위 구축 및 5단계 분류범위 제시, 건강수준평가 알고리즘 개발, 웹-앱 기반형 HRS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건강관리 올인원 시스템 기반을 구축(측정-관리-피드백)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광역시 주치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기대효과

부산광역시시의 건강관리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은 타 시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출 모델 가능성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산시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전략에 부합하여 부산시민의 객관적인 건강수준을 평가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러한 건강관리 플랫폼의 확산은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건강하고 안녕하게 해줄 초석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SPECIAL + 02

스포츠윤리의 현재와 미래

지난 2019년 1월 25일 체육부장관은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스포츠 분야 전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의 비리 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동계올림픽대회의 대표적 종목인 여자쇼트트랙의 심모 선수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국가대표 코치인 조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체육계는 새해부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성폭력을 비롯한 체육계에 관행으로 생각되었던 비윤리적 행위 전반에 대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비윤리적 문제를 때문에 체육계가 곤혹을 치루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倫理)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倫)의 이치(理)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현상의 바탕이 되는 원리로서 개인의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보편적인 도덕의 원리에 비추어 반성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실천의 과정이다.

스포츠윤리란 스포츠에 관여하는 특정 집단 및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의 옳고 그름과 스포츠 규범의 도덕적 원리를 밝히는 것으로서 신체 활동의 실천을 통해 모든 도덕 법칙과 원리는 비로소 윤리적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윤리와 스포츠 윤리는 ‘실천’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윤리 안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듯이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만들어진 윤리의식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권오륜 교수

을 바탕으로 스포츠윤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윤리는 일반 윤리와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가 스포츠 스스로 진화한 윤리적 가치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존의 사회 윤리 규범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7년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까뮈(Albert Camus, 1913-1960)는 “인간의 도덕과 의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축구에서 배웠다”라고 한 것처럼 스포츠를 통해 배우고 실천한 윤리 의식이 사회의 윤리 규범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스포츠윤리는 일반 윤리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 스포츠윤리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윤리는 경쟁의 도덕적 조건과 가치 있는 승리의 의미를 밝혀주고,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 행위의 유형과 공정성의 조건을 제시해준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도덕적 자질과 인격의 함양을 도와주며,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등 스포츠윤리 규범의 확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도덕적 법칙과 원리에 대해 실천의 과정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일반 윤리에 비해 스포츠윤리는 스포츠가 일어나고 있는장에서 모든 관중에게 스포츠윤리의 실천적 행위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시합에 임하는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쓰러진 상대선수를 배려하는 스포츠맨십 정신은 사회공동체가 지향하는 최고의 윤리의식인 것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미터 경기에서 일본의 고다이 나오키 선수와 이상화 선수가 보여준 배려와 우정의 모습은 스포츠맨십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2018년 아시안컵 U-23축구 선수권대회 결승전 경기 연장전에서 패한 베트남 선수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 너희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정말 잘 했다.”라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격려의 말이 선수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일화는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스포츠 현장에는 사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비윤리적 상황들이 전이되어 고

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성폭력 문제를 포함하여 선수 폭력, 지도자 폭력, 관중 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약물 복용,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장애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스포츠 현장에서는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이 관중들에게 감동을 안기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태권도 겨루기 68kg 이대훈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란 선수를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해 아시아경기대회 역사상 첫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주저앉아 있는 이란 선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모습이 관중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대훈은 2012 런던올림픽대회 결승에서도 자신을 이긴 스페인 선수의 손을 들어 보이며 우승을 축하해주는 모습으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의 현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의 윤리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생생한 체험의 장이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윤리 문제는 기존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철학적 관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

는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간과 가상현실, 인간과 로봇 혹은 인공지능인간이 혼재하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윤리관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는 약물 위주의 도핑에서 더욱 과학적으로 진보한 기술도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전학과 유전공학의 획기적인 발달은 질병 치료의 목적을 넘어 스포츠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의 향상에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유전자 도핑’이 현실화됨으로써 스포츠윤리학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현상의 하나인 스포츠는 사회공동체의 윤리 도덕의식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드러나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규칙준수,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과 같은 도덕규범은 사회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규범인 동시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규범이기 때문에 보편적 도덕규범의 장으로서 스포츠 윤리는 미래 사회의 인간의 삶과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윤리 의식을 정립하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화현상의 하나인 스포츠는
사회공동체의 윤리 도덕의식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드러나는 유기체이다.
”



새로운 100년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5월 7일(화)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과 이동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주관한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과 지방체육회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 연구위원이 발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안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현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가 마련한 토론회로 이해 당사자인 지방체육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펼쳤다.

발제를 맡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체육은 한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버팀목이자 스포츠 복지 서비스의 거점”이라며 그 중요성을 인정한 뒤 “겸직 금지안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지방체육의 재정 및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현장에 기반한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체육회를 체육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방체육회의 역할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법적지위 확보 및 위상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역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회장선출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혀 사실상 지방체육회가 원하고 있는 ‘총회에서 추대 및 선출’ 방식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회장 선출방식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 현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 체육계에서는 선거인단을 통한 체육단체장 선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거는 결국 승자와 패자를 나누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패가 갈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지방체육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 하는 시기에 선거의 부작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 5월 7일(화)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 역할을 맡은 성문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선거를 하면 갈등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군단위 체육회에서는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선거 업무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인단을 통한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각 시·도를 순회하며 지방체육의 현실과 회장 선출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지역마다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최대한 빨리 지역체육회장 선출 위원회와 같은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6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각 지역 체육계에서는 총회를 통해 체육단체장을 추대 혹은 선출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체육의 자율성 확보와 정치로부터 체육을 독립시키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라면 체육계 내에서 단체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대규모 선거인단을 통한 선거를 치르면 막대한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선거인단 구성과정부터 각종 민원과 소송으로 체육회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 예산의 대부분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형성된다. 지자체장과 정치적 코드가 다른 체육회장이 뽑히게 되면 결국 지방체육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방 체육회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체육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출처

스포츠서울 (핫이슈) 2019. 05. 08

- 지방체육 빨간불, ‘체육의 정치화’ 부추긴 법 개정
- 체육단체장 선거가 능사인가? 총회 통한 추대 혹은 선출이 합리적

스포츠 인권교육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은 스포츠인권 전문가들이 일선 학교의 운동부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수행 중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관련 폭력, 성폭력에 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 또는 학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Q1 어떤 내용으로 교육상담을 하는 건가요?



선수

Player


지도자

Manager


학부모

Parents

학업과 운동부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바, 이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 발생 시의 처리 방법(도움 안내),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종전 국제대회 우수성적 등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력 성과에 치우쳐 있던 관심이 최근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 처우 개선과 복지 등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선수들의 교육과 더불어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 발생 시의 처리방법과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지침과 규제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올바른 지도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다.

자녀(선수)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지금까지 관행으로 야기되었던 선수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예방법(가이드스 제시), 문제발생 시 처리 방법,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관련 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별 행동지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녀의 인권 향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Q2 누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스포츠 인권침해(폭력, 성폭력)를 예방하고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일선 학교의 운동부(학교,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상담실은 신청학교(운동부)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시·도교육청 및 시·도체육회의 추천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Q3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리나요?

- 언제** — 연중(세부 일정은 신청 후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
- 교육신청** — <https://sports-in.sports.or.kr> 에서 신청 가능하다.(찾아가는 교육신청)
- 어디서** — 일선 학교 운동부 등

Q4 어떤 분들이 프로그램을 준비, 진행하시나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내에 스포츠인권 전문상담사와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외부 스포츠분야 전문강사)이 직접 해당학교의 운동부에 맞게(종목, 연령 등을 고려) 맞춤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Q.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이란?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인권 보호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시·도별, 경기 단체로 구성, 본회의 관련 사업(교육, 상담, 신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직접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 ① 엘리트 선수, 지도자출신자
- ② 체육 관련 학과 교수
- ③ 전문 상담 교육자(폭력, 성폭력)
- ④ 법률자문인사
- ⑤ 관련 부처인사 등
- ⑥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전문가

Q5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스포츠인권상담
선수를 위한 롤 모델 제시

+



인권 관련 정보제공
지도자로서 롤 모델 제시

+



자녀의 인권 관련 상황
향후 정책정보

문화품앗이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01 문화체육자원봉사란 무엇인가요?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시스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화체육자원봉사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으로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책임 운영하고 있다. 문화품앗이에서는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 등은 봉사자를 모집 관리할 수 있으며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은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02 문화품앗이의 주요 서비스에는 어떤 게 있나요?



봉사자 맞춤형 매칭 활동정보 제공

- 주 활동지역과 관심분야에 대한 맞춤형 매칭 봉사정보 제공



문화체육자원봉사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활동 가능

- 활동영역의 공간별·분야별·기능별 활동분류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활동 정보 제공



개인 맞춤형 봉사활동 이력관리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제공

- 봉사자의 활동시간을 일자별, 활동영역별로 '봉사활동내역 확인서비스' 제공
- 봉사자가 전문성을 쌓고 싶은 분야의 활동내역 관리 및 확인서 제공



그룹(동아리, 봉사단) 봉사활동 지원

- 그룹(2인 이상의 봉사자) 가입 및 그룹회원관리와 활동내역(시간) 관리
- 관리처의 승인을 통해 봉사활동 직접 기획 및 제안, 봉사자 모집
- 타 동호회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제안 가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마일리지 및 다양한 이벤트 제공
- 우수 봉사자·봉사단·활동기관 선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시상

03 문화체육자원봉사의 활동현장은 어디인가요?

문화현장

예술활동이 일어나는 공연장, 전시장 같은 시설이나 공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문화공간도 포함된다.

※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사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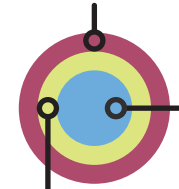
체육현장

경기장, 체육관과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체육공간도 포함된다.

※ 모든 사회계층 사람이 함께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터전



문화공간

일상의 생활문화 공간

문화시설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 시설

생활공간

체육활동 장소



체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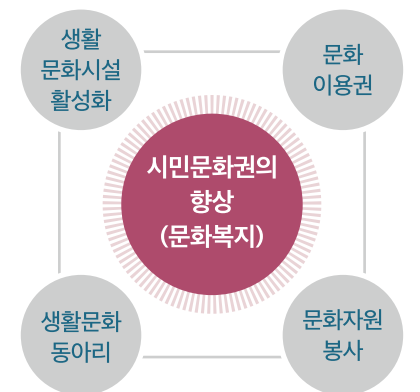
체육 관련 시설

복지공간

사회복지시설

04 문화체육자원봉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 현대사회는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담고 있으며, 삶의 기획력을 높여주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 문화체육자원봉사는 다른 사람들의 문화 향유를 돕는 동시에 스스로의 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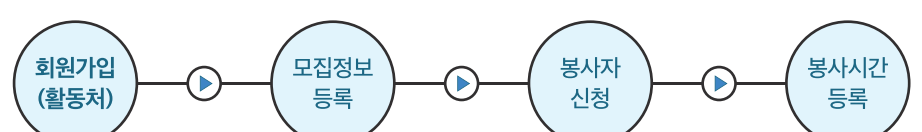
05 문화체육자원봉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개인회원



활동처 회원



문화품앗이 홈페이지 <http://csv.culture.go.kr>



앞으로 1년!

2020 도쿄올림픽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2020 도쿄올림픽대회가 벌써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도 오랜 양국 간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 경제, 문화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뜨거운 대결의 장을 펼쳐왔다. 경기 일정도 확정됐다. 2020 도쿄올림픽대회·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통해 올림픽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회식은 도쿄올림픽 스타디움에서 2020년 7월 24일 오후 8시에, 폐회식은 같은 장소에서 8월 9일에 진행된다. 경기는 개회식 이틀 전인 7월 22일부터 있을 예정이다.

스포츠 외교의 좋은 기회, 도쿄올림픽대회

2018년 북한 대표팀의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로 시작되었던 남북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스포츠 외교는 오늘날 매우 당연한 외교적 방법들 중의 하나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포츠 외교 분야의 주요 저자 중 한 명인 머레이는 “만약 전통적 외교가 국가의 외교 정책적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면, 스포츠 외교는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들을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스포츠 외교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무대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이며, 특히 그 백미는 올림픽대회이다. 의례, 경쟁, 승리, 민족적 정서와 결합된 올림픽 무대는 스포츠 외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킨다.

한반도에서 개최되었던 두 번의 올림픽대회는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한다는 올림픽 정신의 이상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8 서울올림픽대회는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열기의 분출과 군사독재정부의 종말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국제적으로는 냉전과 탈냉전의 접점에서 본격적 냉전해체의 신호탄으로 작동하였다.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지구촌은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과시할 우리 국가대표

오랜 기간 라이벌로 대결해온 한국과 일본. 그러나 지난 2016 리우올림픽대회를 기점으로 일본은 스포츠에서 한국을 총체적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일본은 한국과의 격차를 현격히 벌렸다. 도쿄올림픽대회를 유치한 일본은 수년 전 체육부를 창설해놓고 엘리트 스포츠를 질적으로 크게 성장시켜 88 서울올림픽대회 이후 20여 년 이상 열세였던 한국 스포츠를 넘어설 수 있었다.

한국이 비록 현재 일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비감한 자세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올림픽 종목 위주로 펼쳐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의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기본종목인 육상, 수영, 체조부터 도쿄올림픽대회 신설종목인 야구, 가라테, 3대3 농구 등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해 한국 스포츠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해야 한다. 도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들은 국가대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인 사유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국가대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대표를 국가대표답게 만드는 것은 개인이 자신을 넘어 한 사회, 국가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숭고한 사명의식이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올림픽대회. 지금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국가대표들이 힘든 훈련을 견디고 올림픽 무대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칠길 기대한다.



#01

Skateboard

TOKYO
2020
OLYMPIC

길거리 위 화려한 볼거리,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는 캘리포니아의 서퍼들이 파도가 없는 날에도 보드를 타기 위해 서핑보드에 바퀴를 달아 만들어졌다. 종목은 반원통 무대에서 묘기를 선보이는 ‘파크’와 다양한 구조물에서 기술을 펼치는 ‘스트리트’로 나뉜다. 파크의 무대는 몇 가지 슬로프로 구성돼 스트리트와 비교하면 아주 단순한 대신 선수들은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2018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케이트보드의 채점항목으로는 기술의 난이도와 일관성, 선과 스타일 등이 있다. 심사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태어난 스포츠인 만큼 자유로움, 멋과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대회

신규종목을 소개합니다

Baseball

#02

야구가 돌아왔다! 소프트볼도 선보여

2008 베이징올림픽대회 이후로 12년 만에 야구가 정식종목에 다시 채택됐다.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한국야구대표팀은 7전 전승 우승 신화를 이루며 야구 열풍을 이끌었다. 비록 병역특례 논란과 압도적이지 못했던 경기력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효자 종목임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감독직을 수행했고,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 신화를 쓴 바 있는 김경문 감독이 올해 1월 신임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도쿄올림픽대회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 있다. 한편, 소프트볼은 많은 사람들이 야구와 비슷한 종목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 우선 소프트볼은 여자고등학교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으며, 올림픽대회에서는 여자 종목의 경기만 펼쳐진다.



#03

Sports
Climbing

인공 암벽과의 경쟁, 스포츠크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은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암벽 등반을 즐기는 스포츠다. 스포츠크라이밍은 스피드 개인, 스피드 릴레이, 콤바인 등 크게 3개의 종목이 있다.

스피드는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서 15m 높이의 암벽을 가장 빠르게 도달한 선수가 우승한다. 스피드 릴레이는 팀 경기로, 첫 번째 선수가 출발하여 경기벽 상단의 터치패드를 누르면 다음 선수가 출발하는 형식이다. 세 선수의 등반시간을 합산하여 최단시간을 겨룬다. 콤바인은 개인 종합 종목으로 스피드(속도)·리드(난이도)·볼더링의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Introduce NEW SPORTS

지난 올림픽 종목에 도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야구·소프트볼, 가라테, 서핑, 스포츠크라이밍, 스케이트보드가 추가된 총 33종목이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는 올림픽 개혁의 일환으로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부터 개최지가 그 대회에 한해 종목 추가를 제안할 수 있게 했다. 익숙함과 새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도쿄올림픽대회 신규 종목들을 소개한다.

Surfing

#04

해양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서핑

위험하지만 매력 있는 해양스포츠 서핑은 과거엔 서핑환경이 조성된 지역에 한정적으로 가능한 스포츠였다.

그러나 최근 슈트와 보드의 발전, 서핑 문화의 확산으로 세계 어느 해변에서나 즐기는 스포츠가 됐다. 월드 서핑 리그(WSL)에 따르면, 서핑의 심사 기준은 다음 5가지 요소를 분석한다. 1. 기술 시 리스크와 난이도, 2. 혁신성과 공격성, 3. 주요 기술의 조합, 4. 기술의 다양성, 5. 스피드와 힘, 기술의 흐름을 본 뒤, 다섯 명의 심판이 한 명씩 각각의 웨이브 점수를 1~10점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뒤 나머지 심판의 점수를 평균화한다.



전국체육대회 부산 개최와 부산시체육회의 성장

01

부산 경제의 도약과 체육 환경의 변화

부산시체육회 출범 첫해인 1963년 제44회 전국체육대회 4위, 이듬해인 1964년 3위를 기록한 후 1971년까지 4위와 5위를 오르내리며 중위권에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던 부산 체육에 대도약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72년을 맞이하면서부터였다.

정부직할시 승격 이후 부산은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국내 제 2 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인구 증가에 따라 학교체육과 실업체육이 활성화되고, 선수 층도 두터워지는 등 여러 제반조건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육 역량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중위권에 고정됨으로써 제고된 부산의 도시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02

기대에 못 미친 체육 성적

대망의 1970년대를 맞아 부산시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을 위한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특히 각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우세 종목과 취약 종목을 면밀하게 파악, 획득 가능한 메달 수와 예상 득점을 명확하게 산출함으로써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보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부여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71년 7월 치러진 부산시종합체육대회에서 좋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위권 도약의 기대를 증폭시켰다. 전국체육대회 부산 예산의 성격을 겸해 개최된 이 대회에서는 역도에서 나온 한국신 기록을 포함해 부산신기록 11개, 대회신기록 26개, 부산학생신기록 1개 등 총 38개의 기록이 경신했다. 이전의 그 어느 대회보다도 상위권 도약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부산시체육회와 선수단은 결의에 찬 결단식을 갖고 전국체육대회의 장도에 올랐으나, 결국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다. 기대했던 상위권 도약은커녕 전년도 제51회 대회에서 기록한 4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은 성적이었다.

03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사상 최고 순위 달성

그리고 마침내 1972년 10월, 제53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부산은 총 1,24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제45회 대회 3위 입상 이후 10여 년만의 상위권 입상에 도전했다. 부산의 기세는 기대 이상이었다. 전년도 대회의 부진을 씻어내기 위해 1년여 간 절치부심, 경기력 향상에 집중해온 부산은 파죽지세로 메달을 수확하며 열띤 순위경쟁을 펼쳐 나갔다.

상위권 진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를 거듭해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까지 축구 고등부(동아고)와 펜싱 남고부(대양공고)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함으로써 금메달 73개, 은메달 53개, 동메달 56개 등 총 18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종합득점 2만206점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를 제치고 종합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부산은 오랜 숙원이었던 상위권 진입의 꿈을 이뤘으며, 전국체육대회 참가 사상 최고 순위 달성의 신기원을 이룩했다.

04

부산의 위상을 보여준 제54회 전국체육대회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는 대회를 주관하는 부산시나 부산시체육회뿐 아니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국가 체육계 전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 대회였다.

1965년 제46회 전라남도 대회를 마지막으로 제47회 대회부터 제53회 대회까지 총 7회의 전국체육대회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다. 당시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지방의 체육 시설과 미숙한 대회 운영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전국체육대회의 서울 연속 개최는 한국 체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서울의 전력편중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54회 전국체육대회의 부산 개최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끌며 명실상부 국내 제2의 도시로 부상한 부산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한국 체육의 균형발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매우 깊었다.

1973년 10월 12일. 부산에서 16년 만에 펼쳐진 전국체육대회는 개회식부터 좌중을 압도했다. 재외동포를 포함, 전국 13개 시도 1만2000여 명의 선수단이 구덕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여 관중의 우렁찬 환호 속에 입장했다.

입장식 매 순간마다 역동적인 카드섹션이 관중석을 화려하게 수놓은 데 이어,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돼 520여km를 달려온 성화가 최종주자인 최영기에 의해 점화되자 2000여 마리의 비둘기떼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을 연출했다.

서울을 능가하는 우수한 경기시설,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의 안정적 운영 속에서 제5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신기록이 5개에 불과해 내용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따랐지만, 2개의 한국 타이기록과 U-20(주니어) 신기록 3개, 대회신기록 79개 등 총 101개의 각종 신기록이 수립됐다.

05

지방 체육의 가능성을 증명하다

성공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 이에 호응하듯 터져 나온 풍성한 기록과 더불어 전년도 대회에 이어 연속 준우승을 달성한 것도 제54회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부산이 거둬들인 큰 수확이었다. 이 대회에서 부산은 전 대회의 상승세를 이어간 수영 등 기타 종목의 분전 속에서 금메달 70개, 은메달 62개, 동메달 59개로 총 191개의 메달을 획득해 총 1만9901점의 종합득점을 기록함으로써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참고자료 : 부산 체육 50년사



0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경기력 향상을 위한

2019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워크숍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양일간 경주코모도 호텔에서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120여 명과 함께 2019년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부산광역시 실업팀 선수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워크숍은 선수들이 소속감을 고취하고 서로간의 운영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일정 첫날에는 경주보문단지 트레킹을 시작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여성가족개발원 황빈), 트레이닝기법(진천선수촌 전문위원 심문보), IOC 부상방지 프로그램(진천선수촌 물리치료사 이제훈)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심리교육(심리학 박사 허린), 스포츠테이핑(스포츠안전재단 박희홍)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워크숍 형태로 전문지식과 스포츠상해(부상) 방지 및 훈련 효과 달성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마련되었으며 심리교육을 통하여 선수 개인별 심리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스포츠테이핑 교육은 차후 워크숍에 추가 강의를 요청할 정도로 선수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훈련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소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나은 워크숍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02

체육지도자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부산 체육지도자 아카데미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4월 23일(화)부터 오는 6월 2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씩 8주간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 영상관 등에서 부산 관내 고등·대학·일반(실업)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2019 부산 체육지도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스포츠의 가치를 주제로 한 소양교육과 스포츠 윤리철학, (성)폭력 예방, 도핑방지 교육 등 자질교육과 스포츠의학, 스포츠심리, 스포츠영양학, 재활 운동처방 내용의 전문성 교육으로 진행된다.

‘부산 체육지도자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스포츠계에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을 제고하고, 최근 더욱 강조되는 지도자의 도덕성 및 자질을 함양하며, 전문성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도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분야별 전문 교수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현장에 필요한 교과목과 시대흐름에 대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운영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청경우독(晴耕雨讀)의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자에게 자질 함양과 지도역량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산체육 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 육성·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시간표

구분	날짜	1교시 (19:00~19:50)	2교시 (20:00~20:50)	3교시 (21:00~21:50)
1차시	4.23.(화)	교양 “이젠 스포츠가치 3.0 시대다”(송강영)		
2차시	4.30.(화)	(성)폭력 예방(곽진주)		
3차시	5.07.(화)	도핑방지(이동훈)		
4차시	5.14.(화)	스포츠윤리철학(권오륜)		
5차시	6.04.(화)	스포츠의학(김태규)		
6차시	6.11.(화)	스포츠심리의 이해(신정택)		
7차시	6.18.(화)	스포츠와 영양(박성철)		
8차시	6.25.(화)	컨디셔닝(소용석)		
※ 1교시 09:00~09:50, 2교시 10:00~10:50, 3교시 11:00~11:50				



03

제57회
체육주간기념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

지난 4월 24일(수) 사직실내체육관 보조B구장 외 3개소에서 생활체육교실 회원 5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7회 체육주간기념 생활체육교실 회원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실시되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로 57번째를 맞이한 체육주간은 ‘건강한 일상 특별한 일주일’이라는 표어를 통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체육회는 체육주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24일 오전 9시부터 사직실내체육관 보조B구장 외 3개소에서 탁구, 배드민턴, 요가, 국학기공,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에 대한 체육경기를 진행하였으며, 회원들은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배드민턴, 탁구는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요가, 국학기공, 에어로빅은 조별음악에 맞춰 구성한 작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채점을 합계하여 순위를 결정하였다. 매년 개최되는 회원체육대회는 승패보다는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서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김동준 사무처장은 “모두가 화합하는 행사로 따뜻한 봄의 추억과 함께 회원들이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4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축제2019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 6만여 명이 모여 함께하는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4월 25일(목)부터 4월 28일(일)까지 나흘간 충청북도 일원 11개 시·군 중 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고, 지역·계층 간 화합에 기여해온 대축전은 2001년 제주도에서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9 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총 43개 종목(정식38, 시범5)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부산선수단은 35개 종목(정식34, 시범1)에 1,20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단이 참가하여 열전을 펼쳤다.

개회식은 4월 26일(금) 오후 5시부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식전행사인 ‘생명의 도시 건강 100세’, 공식행사인 ‘어서와유’, 식후행사인 ‘강호축의 중심, 강호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충청북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관계, 체육계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시·도 종목별 참가자 및 도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함께 손꼽히는 국내 5대 체육대회 중 하나로, 전문체육인 위주가 아닌 순수 생활체육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 대회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승부를 떠나 서로 화합하고 우의를 나누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축제로 열렸다.

폐회식은 4월 28일(일) 오후 4시 충청북도 충주시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폐회식은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시작되어 성적발표 및 종합시상, 대회기 이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대축전은 결과와 순위에 관계없이 전국 시·도 선수단이 생활체육을 통해 화합과 소통하고 건강과 행복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인 만큼 최고령상, 질서상, 경기운영상, 특별상, 경기력상, 성취상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시상으로 마무리되었다.



05

100세 시대, 스포츠로 활력 충전

제14회 어르신 체육대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5월 3일(금)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 외 5개소(을숙도생태공원 축구장, 사직실내체육관 보조A·B구장, 아시아드보조경기장, 사직실내테니스장)에서 어르신 동호인 1,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4회 어르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부산시 치어리딩협회 시범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에는 부산광역시 오거돈 시장,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 등 많은 내빈이 참가하여 어르신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대회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노년층의 건강과 성취감을 도모하며, 단순한 체육대회에서 벗어나 노인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어르신 동호인들은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8개 종목에 참가하여 구·군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올해 14회째를 맞이하는 어르신체육대회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됨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으며, 대회에 참가한 어르신 모두가 평소에 갖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전문체육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생활체육은 건강에도 좋지만 나이와 계층,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으며, 인생을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며 “구·군 어르신들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결과

구분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및 장려
축구	기장군	부산진구	영도구, 해운대구
배드민턴	동래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
테니스	금정구	기장군	북구, 해운대구
게이트볼	북구A	금정구B	부산진구B, 수영구A
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체조	수영구	북구	강서구, 해운대구
국학기공	연제구	동구	수영구, 영도구
그라운드골프	금정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06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

제48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지난 5월 25일(토)부터 5월 28일(화)까지 4일간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라북도 익산 종합경기장 등 49개 경기장에서 17,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메달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수 모두가 경기를 즐기며 화합하여 ‘아름다운 도전’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와 감동”을 더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2년부터 개최되어 시·도 간 과열경쟁을 피하고, 참가자 모두가 화합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종합 순위를 집계하지 않고 종목별 개인 시상으로 실시된다. 어린 꿈나무선수들이 승패를 떠나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금메달 25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1개 등 총 73개의 메달을 획득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뽐내었다. 다관왕으로는 수영(다이빙) 김승현(사직중3) 선수가 3관왕을, 수영(경영) 김윤희(반송여중3), 수영(경영) 권희준(화명중3), 자전거 이찬영(사하중3), 근대3종 손정욱(부산체중3), 에어로빅 차지원(신곡중3) 선수가 2관왕을 달성하여 부산선수단에게 큰 기쁨을 전달하였다. 종목별 최우수선수로는 배구(대연중3) 백동현, 자전거(사하중3) 이찬영, 레슬링(부산체중3) 성영준, 배드민턴(남일중3) 김애린, 근대3종(부산체중3) 손정욱, 요트(해강중3) 박정빈, 에어로빅(신곡중2) 차지원 선수로 7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육상종목에서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2008년 이후 11년 만에 메달 8개를 획득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고 창의적인 체육인을 육성’하는 부산체육중학교는 금메달 5개로 2013년 최초 참가 이후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에는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팀으로 체조와 테니스 종목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였으며, 금년도 대회를 계기로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육성함으로써 부산체육의 경쟁력 강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기간 동안 부산선수단 모두가 힘을 모아 부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 박가서 부회장 및 김동준 사무처장 등 임·직원들은 부산 꿈나무 선수들이 땀 흘리고 있는 경기장을 방문하여 부산시민의 찬사와 격려를 대신 전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소식

05+06



01 꿈나무체능단
소식



꿈나무체능단은 지난 4월 12일(금) 봄 소풍을 개최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놀이동산과 미니 동물원을 체험하며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꿈나무체능단을 대상으로 신체 체력 테스트를 4월 25일(목)부터 4월 26일(금)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신체 치수를 측정하여 성장상태를 확인하고 5m 왕복달리기, 좌전굴, 20m 달리기 등 기초체력을 측정 분석하여 체능단의 성장과 체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02 건강데이터 유효성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 진행



부산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부터 동아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데이터 유효성검증 의료임상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외상 경험자나 자세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나 원인 모를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동적 균형검사를 최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을 단계별로 걸으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현재 400명 이상의 대상자가 참가하였으며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03 부산국민체육센터
직원 등반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일) ‘자연을 아름답게 환경을 깨끗하게’라는 표어를 가지고 전 직원이 단합하는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연 속에서 산행을 하면서 동료애를 다지며 서로 간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체육대회를 마련하여 직원 단합의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C반 월~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이상
07:00~07:50	생활수영	A반 월~금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청소년 이상
08:00~08:50		B반 월~금	청소년 : 60,500	
09:00~09:50	어머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10:00~10:50	웰빙수영(격일)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11:00~11:50	웰빙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14:00~14:50	성인수영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여성
	실버수영	화.목(토)	44,000	65세 이상만
15:00~15:50	성인수영	B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16:00~16:50	돌고래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39,600 33,000	초1~6년 7세~초4년
17:00~17:50	하마수영	A반 월.수.금 B반 화.목(토)	39,600 33,000	초1~6년
18:00~18:50	직장인수영(격일)	A반 월.수.금	성 인 : 51,700 노 인 : 48,400	성인 누구나
19:00~19:50	직장인수영(매일)	C반 월~금	성 인 : 67,100 청소년 : 60,500 노 인 : 52,800	청소년 이상
20:00~20:50	야간수영	토	성 인 : 67,100 노 인 : 52,800	성인 누구나
21:00~21:50			25,300	
15:00~15:50	주말수영(배영이상)	토		초2~6년
12:00~12:50	아쿠아로빅	A반 화.목.토	성 인 : 60,500 노 인 : 52,800	성인 여성
15:00~15:50		B반 화.목.토		
11:00~11:50		C반 월.수.금		
12:00~12:50		D반 화.목.토		
13:00~13:50		F반 월.수.금		
18:00~18:50	월자유수영	E반 화.목(토)	45,000	성인 누구나
06:00~07:30		A반 월~금	성 인 : 53,900 노 인 : 33,000 청소년 : 46,200	청소년 이상
08:00~09:30		B반 월~금		
10:00~11:30		C반 월~금		
17:00~18:30		E반 월~금		
19:00~20:30		F반 월~금		

※ 실버수영, 돌고래, 하마수, 아쿠아데는 토요일 자유수영으로 대체

+ 요가 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06:50	새벽요가	A반 월.수.금	주2일반 38,500 주3일반 38,500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청소년 : 45,1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수.금		
08:00~08:50		C반 화.목		
		D반 월.수.금		
10:00~10:50	웰빙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1:00~11:50	생활요가	C반 월.수.금		
14:00~14:50		A반 월.수.금		
15:10~16:00		B반 화.목		
16:00~16:50	아로마요가	A반 월.수.금		
		B반 화.목		
17:10~18:00	직장인요가	C반 월.수.금		
19:00~19:50		A반 월.수.금		
		B반 화.목		
20:00~20:50		C반 월.수.금		
		D반 화.목		

+ 생활체육 프로그램※ 부가세 포함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06:00~22:00 토 16:50까지	헬스교실	월~토	성 인 : 47,300 노 인 : 38,500 청소년 : 38,500	청소년 이상
06:00~06:50	배드민턴	A반 월~목 (강습)	성 인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07:00~07:50		B반 월~목 (강습)		
08:00~08:50		C반 월~목 (강습)		
09:00~09:50		D반 월~목 (강습)		
10:00~10:50		E반 월~목 (강습)		
18:00~18:50		F반 월~목 (강습)		
19:00~19:50		G반 월~목 (강습)		
20:00~20:50		H반 월~목 (강습)		
18:00~18:50	탁구	A반 월~목 (강습)	성 인 : 41,800 노 인 : 38,500	성인 이상
19:00~19:50		B반 월~목 (강습)		
20:00~20:50		C반 월~목 (강습)		
16:00~16:50	어린이배드민턴	월.수.금	38,500	초3~6년
16:00~16:50	농구	A반 화.목	33,000	초1~6년
17:00~17:50		B반 월.수.금	초 등 : 38,500 청소년 : 44,000	초4년~중등
06:30~07:20	필라테스	B반 화.목.토	성 인 : 50,600 청소년 : 45,100 노 인 : 38,500	청소년 이상
09:00~09:50		C반 화.목.토		
09:00~09:50		G반 월.수.금		
10:00~10:50		D반 화.목.토		
14:00~14:50		F반 월.수.금		
19:00~19:50		H반 월.수.금		
20:00~20:50		A반 월.수.금		
21:00~21:50		E반 월.수.금		
15:00~15:50	실내축구	화.목	33,000	7세~초3년
16:00~16:50	발레	화.목	33,000	5세~7세
17:00~17:50	음악줄넘기	화.목	38,500	초등학생
17:00~17:50	어린이밸리댄스	월.수.금	38,500	7세~초등생
10:00~10:50	에어로빅	A반 월.수.금	50,600	성인 누구나
18:00~18:50		B반 월~금	51,700	
16:00~16:50	발리댄스	월.수.금	성 인 : 50,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19:00~19:50	댄스스포츠	초급 화.목	성 인 : 39,600 노 인 : 38,500	성인 누구나
20:00~21:30		중급 화.목	성 인 : 44,000 노 인 : 38,500	

+ 문화 프로그램※ 재료 및 교재비 별도

시간	프로그램	요일	참가비(원)	대상
14:00~14:50	속독교실	토	25,000	초등~중학
14:00~14:50	바둑교실	A반 토	30,000	초1~초6
15:00~15:50		B반 토		
15:10~16:00	신나는 과학교실	금	30,000	6~초3
15:10~16:00	동화구연	월	25,000	5~7세
15:10~16:00	블록놀이 (아이링고)	수	30,000	6~7세
15:10~16:00	지니맥	A반 수	30,000	유치부
16:10~17:00		B반 수		

+ 문의전화 : 051-243-5959

북구국민
체육센터
소식

05+06

02 상반기 구조 및
응급처치법 교육 실시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기도폐쇄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정지 환자의 전조증상,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사례 교육 후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방법 등 각종 사고 시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되었다.

북구국민체육센터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회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01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수영종목 1위 패거

지난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충북 일원에서 개최된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수영 종목 부산대표로 참가하여 초등부 자유형 50m 종목에서 부산북구스포츠클럽 수영꿈나무선수단 소속 정유주(13세) 선수가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15명의 선수로 구성된 북구스포츠클럽 수영꿈나무선수단은 학교 수업 종료 이후 시간을 이용해 훈련과 강습을 진행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



북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성 인 주5회(68,000) / 주3회(44,000) / 주2회(33,000)
청소년 주5회(60,000) / 주3회(38,000) / 주2회(25,000)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초급	주2회 주3회 주5회
		중/고급	
		연수	
		연수	
돌고래	08:00~08:50	초/중급	주2회 주3회 주5회
		연수	
		초급	
		중급	
	09:00~09:50	고급	초급(25명)
		연수	
		초급	
		중급	
	10:00~10:50	고급	중급(25명)
		연수	
		초급	
		중/고급	
거북이	15:00~15:50	성인조합	연수(40명)
	17:00~17:50	성인조합	
굿나잇	19:00~19:50	초급	25명
		중/고급	
		연수	
		연수	
	20:00~20: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21:00~21:50	초급	
		중급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 아쿠아로빅 주2회 44,000원 주3회 5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초급	50명
		중급	80명
	14:00~14:50	고급	

+ 방과후 수영 어린이 46,000원 유아 30,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어린이수영	12:00~12: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중급(30명) 고급(30명) 연수(30명)
		어린이종합반	
	14:00~14:50	유아(월수금)	
		초급	
	17:00~17:50	중급	
		고급	
	18:00~18:50	초급	
		중급	

+ 주말수영 어린이 35,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5,000원

프로그램	강습시간	반영	정원
주말수영	토, 일 11:00~11:50	주 2회	주 2회
핀수영	토, 일 09:00~09:50		

+ (월)자유수영 어린이 30,000원 청소년 40,000원 성인 48,000원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월)자유수영	1부 08:00~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13:50	
	3부 18:00~18:50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8:00~8:50		월~금	
		12:00~12:50			
		18:00~18:50			
	주말	1부	9:00~11:50		주말/공휴일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인	2,300원	성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 스튜디오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정원	(월)회비
타바타(월수금)	06:00~06:50	25명	성 인 : 50,000원
타바타(화목)	06:00~06:50		성 인 : 40,000원
요가(월~금)	07:00~07:50		성 인 : 57,000원
	19:00~19:50		청소년 : 50,000원
춤바로빅(월수금)	09:00~09:50		성 인 : 47,000원
뮤직필라테스(화목)	09:00~09:50		성 인 : 42,000원
파워로빅(월~금)	10:00~10:50		성 인 : 57,000원
	11:00~11:50		청소년 : 50,000원
파워다이어트로빅(월~금)	20:00~20:50		성 인 : 57,000원
	21:00~21:50		청소년 : 50,000원

+ 스트레칭 운동

프로그램	강습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건강스트레칭(A)	12:00~12: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건강스트레칭(B)	19:00~19: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A)	15:00~15: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바디 체인지(B)	16:00~16:50	월, 화, 목	30명	30,000원

+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월~금)	12:00~12:50	30명	30,000원
	15:00~15:50	30명	30,000원
	16:00~16:50	30명	30,000원

+ 헬스클럽

프로그램	운영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30~21:50	성 인 : 46,000원
	주말, 공휴일 19:00~17:50	청소년 : 41,000원

+ 감염환인 대상자

할인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 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 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센터 운영시간	평일	06:00~
	주말(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기간	기초회원	매월 21일~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주 첫째주/셋째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8070

영도국민
체육센터
소식

05+06

01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지난 3월 28일(목)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지민 친절서비스교육 전문강사의 지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체육센터 만들기”를 목표로 직원 표정 하나하나와 서비스 화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영도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주기적인 민원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에 대한 응대법 및 대처방안 마련으로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02 내 몸의 건강을 위한
건강측정사업 실시

영도국민체육센터는 지난 4월 1일(월)부터 오는 12월 31일(화)까지 이용 회원 및 영도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측정사업을 진행한다.

건강측정사업은 보행검사(패턴)를 통하여 골반 및 무릎 발목의 근육, 관절의 상태를 분석하여 하체 건강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진행은 신체치수 측정, 설문지 작성, 보행검사, 결과분석 순서로 진행된다.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수영 프로그램

+ 성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6시]굿모닝수영	주6일	성인	06:00~06:50	월~토(주6일)	65,000
	A반	성인	06:00~06:50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7시]생활수영	주6일	성인	07:00~07: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8시]새아침수영	주6일	성인	08:00~08: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9시]몸짱수영	주6일	성인	09:00~09: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10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0:00~10:50	월~토(주6일)	65,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금	45,000
[11시]웰빙수영	주6일	성인	11:00~11:50	월~토(주6일)	65,000
	C반			월.수.금	45,000
	D반			화.목.금	45,000
[14시]어울림수영	14시	성인	14:00~14:50	월.수.금	45,000
[16시]어울림수영	주5일		16:00~16:50	월~금(주5일)	61,000
	E반			월.수.금	45,000
[18시]직장인수영	F반	성인	18:00~18:50	화.목	35,000
	A반			월.수.금	45,000
[19시]저녁수영	B반	성인	19:00~19:50	화.목	35,000
	주5일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20시]저녁수영	B반	성인	20:00~20:50	화.목	35,000
	주5일			월~금(주5일)	61,000
	C반			월.수.금	45,000
[21시]아간수영	D반	성인	21:00~21:50	화.목	35,000
	21시			월~금(주5일)	61,000
	A반			월.수.금	45,000
	B반		화.목	35,000	

+ 60세 이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13시]실버건강수영	13시	만60세 이상	13:00~13:50	월~금(주5일)	61,000
	A반		13:00~13:50	월.수.금	45,000
	B반		13:00~13:50	화.목	35,000
[14시]실버건강수영	C반		14:00~14:50	월.수.금	45,000

+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아쿠아로빅	A반	성인	12:00~12:50	월.수.금	60,000
	B반		12:00~12:50	화.목.토	60,000
	B-1반		12:00~12:50	토	25,000
	C반		15:00~15:50	월.수.금	60,000

+ 어린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유아 수영	소그룹	B반	만4~6세	17:00~17:50	화.목	60,000
어린이 수영	고래	A반	초등	16:00~16: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상어	A반	초등	17:00~17: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돌고래	A반	초등	18:00~18:50	월.수.금	35,000
		B반			화.목	30,000
토요 수영		B반	초등	15:00~16:40	토	30,000

+ 월 자유수영 프로그램(1일 1회)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자유수영	A반	성인	07:00~09:00	월~금(주5일)	55,000
	B반		14:00~16:00	월~금(주5일)	55,000
	C반		20:00~21:30	월~금(주5일)	55,000

※ 중간에 쉬지 않고 25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재화를 목적으로 걷거나 뛰는 행동은 하지 못합니다.

○ 체육 프로그램

+ 골프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골프 스쿨	A반	중학생 이상	06:00~07:30	월.화.목.금-지도 수.토-연습 -연습시간- 수-수업 시간 토-06:00~17:30	100,000
	B반		07:30~09:00		
	C반		09:00~10:30		
	D반		10:30~12:00		
	E반		12:00~13:30		
	F반		13:30~15:00		
	G반		15:00~16:30		
	H반		16:30~18:00		
	I반		18:00~19:30		
	J반		19:30~21:00		
	K반		21:00~22:30		

+ 탁구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탁구교실	C반	성인	09:00~10:30	월.화.목.금-지도 수.토-연습 -연습시간- 수-수업시간 토-06:00~17:30	성인 55,000 청소년 50,000 어린이 45,000
	D반		10:30~12:00		
	F반	청소년 이상	18:00~19:30		
	G반		19:30~21:00		
	H반		21:00~22:30		
	I반	성인	12:00~13:30		

+ 댄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댄스포츠	A반	성인	20:00~20:50	월,수,금	45,000
	B반		21:00~21:50		
시니어(실버) 댄스포츠	중급	50세 이상	13:00~13:50	화,목	30,000
	초급		14:00~14:50	화,목	30,000

영도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다이어트킥(태보)	C반	성인	18:00~18:50	월.수.금 45,000
다이어트 방송댄스	A반	청소년 이상	19:00~19:50	성 인 55,000 청소년 50,000
	B반		20:00~20:50	
	C반	성인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어린이 방송댄스	－	초등	17:00~17:50	월.수.금 40,000
줌바댄스	A반	성인	11:00~11:50	화.목 40,000
	B반		19:00~19:50	
	C반		20:00~20:50	
	D반		21:00~21:50	월.수.금 50,000
	E반		11:00~11:50	
	F반		21:00~21:50	
파워로빅	A반	성인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B반		10:00~10:50	
벨리댄스	A반	성인	11:00~11:50	월.수.금 45,000
	B반		12:00~12:50	월.수.금 45,000
	C반		19:00~19:50	월.수.금 45,000

+ 줄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음악줄넘기 교실	초급	초등	16:00~16:50	월.수.금 40,000
	중급		17:00~17:50	
	토		10:00~10:50	토 25,000

+ 헬스 프로그램(일 1회 입장)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헬스교실	청소년 이상	06:00~22:00	월 ~ 금 토(06:00~17:00)	성 인 : 44,000 청소년 : 39,000

+ 요가·필라테스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새벽요가	A반	성인	06:00~06:50	월.수.금 40,000
굿모닝요가	A반		08:00~08:50	월.수.금 40,000
웰빙요가	주5일		09:00~09:50	월~금(주5일) 55,000
	A반			월.수.금 40,000
	B반			화.목.토 40,000
	B-1			화.목 35,000
다이어트요가	주5일	성인	10:00~10:50	월~금(주5일) 55,000
	A반		10:00~10:50	월.수.금 40,000
힐링요가	주5일		11:00~11:50	월~금(주5일) 55,000
	B반			화.목 35,000
자세교정요가	A반	청소년 이상	17:00~17:50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파워요가	주5일		18:00~18:50	월~금(주5일) 55,000
	A반			성 인 : 55,000 청소년 : 45,000
	B반			성 인 : 40,000 청소년 : 35,000
				성 인 : 35,000 청소년 : 30,000
				성 인 : 35,000 청소년 : 30,000
몸짱요가	주5일		19:00~19:50	월~금(주5일) 55,000
	A반		19:00~19:50	월.수.금 45,000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활력요가	주5일	성인	20:00~20:50	월~금(주5일) 55,000
	A반		20:00~20:50	월.수.금 45,000
햇요가	주5일	성인	19:00~19:50	월~금(주5일) 95,000
	C반		11:00~11:50	월.수.금 75,000
	D반		19:00~19:50	화.목 50,000
	E반		19:00~19:50	월.수.금 75,000
	G반		20:00~20:50	화.목 50,000
필라테스	A반	성인	10:00~10:50	화.목 35,000
	A-1반		10:00~10:50	화.목.토 45,000
	C반		19:00~19:50	화.목 35,000
	B반		20:00~20:50	화.목 35,000

+ 스쿼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웰빙스쿼시	A-1	청소년 이상	09:00~09:50	화.목.금 70,000
	A-2		09:00~09:50	월 ~금 100,000
	C-1		10:00~10:50	화.목.금 70,000
	C-2		10:00~10:50	월 ~금 100,000
	E-1		11:00~11:50	화.목.금 70,000
	E-2		11:00~11:50	월 ~금 100,000
체력증진 스쿼시	E-1	초등 3년 이상	18:00~18:50	월.수.금 70,000
	E-2		18:00~18:50	월~금 100,000
직장인 스쿼시	A-1	청소년 이상	19:00~19:50	월.수.금 70,000
	A-2		19:00~19:50	월 ~금 100,000
	C-1		20:00~20:50	월.수.금 70,000
	C-2		20:00~20:50	월 ~금 100,000
	E-1		21:00~21:50	월.수.금 70,000
	E-2		21:00~21:50	월 ~금 100,000

+ 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상	시간	참가일	참가비(원)
항공드론	초등	16:00~16:50	화	30,000
발레교실	유아	유아	16:00~16:50	화.목 33,000
	A	초등	17:00~17:50	화.목 33,000

※ 재료비 별도

+ 문의전화 : 051-405-0050

부산의 스포츠 소식

강서구국민체육센터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안내

+ 헬스 프로그램

시간	요일	정원	금액
06:00~22:00	월~금	500명	성 인 : 44,000원 청소년 : 38,500원
09:00~18:00	토요일		
09:00~17:00	공휴일		

+ 수영 프로그램

요일	시간	프로그램		금액	정원
월~금	08:00~10:00	자유수영		성 인 : 48,400원 청소년 : 44,000원	20
	10:00~12:00				
	13:00~15:00				
	15:00~17:00				
	17:00~19:00				
	06:00~06:50	새벽수영A	초급	성 인 : 60,500원 청소년 : 52,800원	100
			중급		
	고급				
	07:00~07:50	새벽수영B	초급		100
			중급		
	고급				
	09:00~09:50	건강수영A	초급		50
			중급		
	고급				
	10:00~10:50	건강수영B	초급		50
			중급		
			고급		
	11:00~11:50	건강수영C	초급	50	
			중급		
	고급				
14:00~14:50	건강수영D	초급	50		
		중급			
고급					
18:00~18:50	저녁수영A	초급	60		
		중급			
고급					
19:00~19:50	저녁수영B	초급	100		
		중급			
고급					
20:00~20:50	저녁수영C	초급	100		
		중급			
고급					
21:00~21:50	저녁수영D	초급	100		
		중급			
고급					
월.수.금	15:00~15:50	아쿠아로빅			60
월~금	16:00~16:50	어린이수영_강습		어린이 : 44,000원	50
	17:00~17:50	어린이수영_강습			50
	어린이 : 초등학생				

※ 평일 어린이 일일 입장 불가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요일	시간	스튜디오1	스튜디오2	금액
월~금	06:10~07:00		모닝요가	성 인 : 55,000원 청소년 : 49,500원
	09:00~09:50	에어로빅		
	10:00~10:50	보라·줌바댄스	예쁜몸매 바른자세요가	
	11:00~11:50	필라테스	웰빙요가	
	18:10~19:00		필라테스	
	18:30~19:20		파워요가	
	19:20~20:10	에어로빅		
	19:30~20:20		다이어트요가	
	20:20~21:10	에어로빅		

+ 일일입장

구분	요일	시간	대상	금액
수영장	월~금	08:00~19:00	청소년 이상	성 인 : 3,300원 청소년 : 2,700원 어린이 : 2,200원
	토요일	09:00~18:00	누구나	
	공휴일	09:00~17:00		
배드민턴	화.수	08:00~10:00 13:30~15:00	청소년 이상	성 인 : 2,200원 청소년 : 1,500원 (고등학생 이상 입장가능)
	월.목	08:00~10:00		
	토·공휴일	09:00~12:00		
헬스	월~금	11:00~15:00		
	토·공휴일			

※ 수영장 일일입장 제한 : 토·공휴일 11:30~13:00(수질정화시간)

체육관 일일입장 제한 : 체육관 프로그램운영, 행사 및 대관(051-974-0472)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육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구분		기간	시간
재수강	현장	20일~24일까지	06시~21시
	인터넷		
신규	현장	25일~말일까지	06시~21시
	인터넷		
회원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11:30~13:00는 일일입장 및 등록이 제한됩니다.			

★ 프로그램 등록 정원의 50% 미달 시 폐강함

※ 할인제도 안내 ※

- 이용료의 50% 할인【확인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및 보호자 1인 50% 할인【복지카드(본인), 가족관계증서】
 - － 장애인(전체 등급)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제급~3급까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0% 할인【증명서 제시】-매달 제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가수강 할인
 - － 3개월 5% 할인, 6개월 10% 할인, 12개월 15% 할인
- 경로우대 30% 할인【본인 신분증 지참】
 - － 만 65세 이상
- 다자녀가족 10% 할인【다자녀 카드 소지자】
 - － 2000년 이후 출산 및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자녀
- 2종목 이상 등록 시 한 종목 10% 할인
- 수영여성회원(만 12세~만 54세) 1개월 이상 장기 등록 시 10% 할인
- 강서구 주민 20% 할인 (주민등록 지참)
- 중복할인 불가

+ 문의

인터넷	http://sports.bsgangseo.co.kr/
전 화	051-974-0472/0473

+ 운영시간

평 일	06:00~22:00	공휴일	09:00~17:00
토요일	09:00~18:00	휴 관	매주 일요일

구·군 체육회 소식

05+06



서구체육회

서구체육회 제2차 이사회 개최



서구체육회는 지난 4월 25일(목) 서구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2차 서구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15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소개 및 위해 촉구보고, 주요사업 및 회계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제2차 정기 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는 지난 4월 18일(목) 동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체육회 이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체육회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심의 안건으로는 201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2019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세입·세출(안), 2019정기총회 개최, 신규 회원단체 가입승인, 임원 위촉, 규정·규약 제정 및 개정, 정회원단체 승격 및 회비 확정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영도구체육회

제7회 배드민턴 여성부대회 개최



영도구체육회는 지난 4월 21일(일) 영도광명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영도구배드민턴협회 여성동호인 94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영도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많은 여성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시합은 긴장감 속에 진행되었으며 결과에 승복하고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며 다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진구체육회

제38회 부산진구 축구협회장기 춘계대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는 지난 4월 28일(일) 황령산 레포츠 공원에서 ‘제38회 부산진구 축구협회장기 춘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호인들은 화합과 협동심을 보여주며 저마다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다.

대회결과 1위 서면축구회, 2위 충무축구회가 차지하였다. 최우수선수상은 황왕도(서면) 선수가 차지하였으며, 우수선수상은 임수일(충무) 선수가 각각 수상하였다.

남구체육회

제10회 남구청장배 남구배드민턴청년부대회



지난 4월 28일(일)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15개 클럽 3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남구청장배 남구배드민턴청년부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배드민턴대회를 통해 동호인들은 한번 더 친목을 다지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래구체육회

제18회 동래구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3월 31일(일) 금정스포원에서 ‘제18회 동래구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1,000명의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자신의 기량을 확인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대회결과 1부-1위 동래클럽, 2위 낙민클럽, 3위 미남클럽이 차지하였고, 2부-1위 동신클럽, 2위 안락클럽, 3위 사직클럽이 각각 차지하였다.

북구체육회

제57회 북구테니스협회장기 대회 개최



지난 4월 14일(일) 화명 생태공원 내 테니스경기장 코트 외 다수경기장에서 ‘제57회 북구테니스협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500명의 북구테니스협회 클럽회원이 자리하여 경기를 응원하며,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결과 [금배부] 1위 강산, 2위 하늘채, 최우수선수는 박성환(강산)가 차지하였고, [은배부] 1위 수정강변, 2위 청운, 최우수선수는 김흥근(수정강변)가 차지하였고, [동배부] 1위 수정강변, 2위 하늘채, 공동 3위 금백·낙천대, 최우수선수는 허대원(수정강변)가 각각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제3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

지난 4월 21일(일) 원동구장 및 안락구장에서 ‘제3회 해운대구협회장기 족구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결과는 관내1부-1위 해마, 2위 재미사마A, 공동3위 장산A, 재미사마B, 관내2부-1위 개발, 2위 일공오, 공동3위 올킬B, 재미사마, 취미부 우승은 임원부, 2위 해마, 공동 3위 재미사마·캐슬이 차지하였다.

사하구체육회**제7회 사하구협회장배볼링대회 개최**

지난 4월 21일(일)에 코스모스볼링장에서 ‘제7회 사하구협회장배볼링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부산시볼링협회장이 개회식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12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대회결과 1위 윤경희, 2위 최의진, 3위 김연권 동호인이 차지하였다.

연제구체육회**제2회 연제구청장기 합기도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지난 4월 14일(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제2회 연제구청장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경기결과로 1위 신화합기도클럽, 2위 선비무관합기도클럽, 3위 도원무술2관클럽이 차지하였으며, 최우수선수로는 선비무관합기도클럽의 조은찬 선수가 수상하였다.

수영구체육회**수영구체육회 4월 이사회 개최**

수영구체육회는 지난 4월 18일(목) 흥도횃집에서 수영구체육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직원 및 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9 수영구체육회 4월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수영구체육회의 현안사항과 추진사항 및 구정소식을 전달하는 계기로 마련되었다.

금정구체육회**2019년 금정구체육회 1/4분기 정기 이사회의 및 정기총회 개최**

금정구체육회는 지난 3월 15일(금) 및 3월 18일(월) 녹우원과 금정구청 7층 회의실에서 “2019년 금정구체육회 1/4분기 정기 이사회”와 “2019 금정구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의 주요 안건으로 회장선거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회원종목단체규정 일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정기총회 안건은 금정구체육회 규약 일부개정(안), 2018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상정하였다. 이후 저녁만찬을 하며 금정구의 체육 발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담소를 나누며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강서구체육회**제12회 강서구 체육회장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강서구체육회는 지난 4월 28일(일) 명지 다목적 오션 인조잔디구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제12회 강서구 체육회장기 종목별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1,200여 명의 종목별선수단 및 임원이 자리하였으며, 총 11종목의 경기가 치러져 동호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사상구체육회**제17회 사상구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일) 사상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7회 사상구탁구협회장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동호인단체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18개 클럽 총 220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 끝에 남자 단식우승은 주례력키클럽 손형주 동호인 외 11명이 차지하였으며, 여자 단식우승은 일반클럽 노경민 동호인 외 11명이 차지하였다. 남자단체전 우승은 스마트클럽 외 3팀이 차지하였으며, 여자단체부 우승은 고고클럽 외 3개 팀이 차지하였다.

기장군체육회**기장군 생활체육인대축전 축구대회 개최**

기장군체육회는 지난 4월 21일(일) 월드컵빌리지 축구장에서 2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장군 생활체육인대축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동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친목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회원 종목단체 소식

05+06



그라운드골프협회

제12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지난 4월 3일(수) 함양공설운동장에서 전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함양그라운드골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그라운드골프 동호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결과, 개인전 1위 임화자(충주) 선수, 2위 이유석(부산) 선수, 3위 홍지원(평택) 선수가, 단체전은 1위 경주, 2위 영동, 3위 세종이 차지하였다.

낚시협회

제5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개인민물낚시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일) 경남남도 진주시 금곡면 금곡리 가봉지에서 낚시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1회 부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개인민물낚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낚시 클럽동호인들, 일반 낚시동호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친목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구협회

제57회 부산광역시춘계농구대회 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 개최



지난 4월 26일(금)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제57회 부산광역시춘계농구대회 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차 예선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결과는 1위 동아중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 2위 금명중학교, 동아고등학교가 차지하였고 최우수 선수는 동아중(조 빈), 부산중앙고(임성민), 우수선수상 금명중(심재윤), 동아고(김도연)에서 각각 차지하였다.

바둑협회

제21회 부산광역시장배 시민바둑대회 개최



지난 4월 28일(일) 부산광역시와 국제신문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바둑협회와 부산광역시바둑협회가 주관하는 ‘제21회 부산광역시장배 시민바둑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두뇌스포츠로 자리매김한 바둑종목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서의 정착을 도모하기에 충분했다. 해마다 선수들의 참가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아마최강부, 전국 여성단체전을 비롯하여 부산 아마최강부 등 14개 부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긴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바둑대회이다. 초청 프로기사로는 최철한 9단, 강지성 9단, 윤지희 3단, 강다정 2단, 이주형 초단 등 부산출신의 기사들이 초대되어 지도 다면기 및 사인회로 대회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스쿼시연맹

제2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 회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개최



지난 3월 9일(토)부터 10(일)까지 양일에 걸쳐 ‘제2회 부산광역시스쿼시연맹회장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첫날에는 경성대학교에서 초·중·고 주니어부 및 구력 2년 미만의 새내기부 경기가 진행되었고, 대회 둘째 날에는 부산스쿼시클럽(대연동 소재)에서 챌린저, 마스터, 혼합복식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 기간 동안 총 14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연맹 관계자는 “스쿼시종목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꾸준히 주니어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선순환하는 선진국형 체육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공공 스포츠클럽 소식

05+06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31회 중고연맹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 우승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선수들은 지난 4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중고연맹회장배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초등부와 여자초등부 단체전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전에서도 남자초등 고학년부 1위(최예승), 3위(남예강), 저학년부 2위(김찬경), 여자초등 고학년부 2위(구차빈), 저학년부 2위(김지연)를 차지하며 부산펜싱을 전국에 알렸다. 클럽 중심체제로 구성된 팀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



부산광역시거점스포츠클럽에서 5월에 열리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부산대표로 총 10명의 선수가 선발되었다.

부별로 테니스 남초부 3명, 여초부 3명, 여중부 1명과 체조 남초부 1명, 여초부 2명이 부산대표로 최종 선발되었다. 2017년 발족한 거점스포츠클럽이 3년 만에 부산시대표로 선발된 것은 클럽중심의 체육발전에 큰 성과이며 앞으로 부산체육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구스포츠클럽

2019 제2회 부산진구스포츠클럽회장배 수영대회 & 선수단 선발전 개최



부산진구스포츠클럽은 지난 4월 21일(일) ‘2019 제2회 부산진구스포츠클럽회장배 수영대회 & 선수단 선발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실력이 한층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대회는 수많은 진행요원들과 10개 팀 1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개개인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대회가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진구 관내 및 부산의 스포츠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스포츠 뉴스

News ● 01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강사 양성 워크숍 개최



개최되었으며, 선수경력 3년 이상의 은퇴선수 34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강사의 사명감 ▲스피치 스킬 ▲실전 강의 준비 방법 ▲효과적인 강의 전개 스킬 ▲최종 강의시연 등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워크숍을 수료한 참가자는 1년간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며 전국 중·고등학교 운동부를 방문하여 진로교육 강의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멘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2

2019년도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 실시



설정의 중요성, 운동선수 경력전환, 스포츠분야 관련 자격증 소개 및 준비방법, 직업정보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국의 운동부가 있는 고등학교는 해당 진로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로교육 강사가 학교 운동부를 찾아가 2시간씩 3회 총 6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매년 은퇴선수 출신의 진로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대회 루지 국가대표 성은령, 1998 나가노동계올림픽대회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안상미, 2007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 강윤미, 수영선수 겸 코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임다연 선수 등 30명이 전문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진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선수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는 3월 18일(월)부터 청운고등학교 축구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은 훈련 중심의 학교생활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경력 개발의 필요성 인식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운동선수 진로교육’은 올해 전국 총 100개 고등학교에서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약 3,200명의 학생선수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진로교육은 ‘운동선수의 경력 : 미래를 향한 준비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목표

스포츠 뉴스

News ● 03

(성)폭력 예방 체계 구축 위해 IOC와 협력



대한체육회는 3월 27일(수)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관계자를 초청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IOC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선수 및 지도자의 교육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고자 IOC에 인권전문가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초청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IOC의 Susan GREINING(IOC 의무분과 매니저)과 Nancy PARK(아시아지역 커뮤니케이션 팀장)뿐만 아니라, 유승민 IOC위원(선수촌혁신소위원회 위원장)과 송란희 스포츠인권교육소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장, 스포츠인권센터 상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성)폭력 예방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IOC는 동 기관에서 만든 “(성)폭력 예방 자료(Prevention of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에 대해 안내하고, 대한체육회 측 관계자와 함께 선수 보호를 위한 기타 IOC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문 요청 방법, 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성)폭력 예방 정책 및 사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4

제4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발대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4월 4일(목) 서울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제4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대한체육회 제4기 대학생 명예기자단 최종 합격자 총 9명이 참석했으며, 선발된 대학생 명예기자단에게는 위촉장 및 기자단 명함이 수여되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대한체육회 김승호 사무총장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우수한 인재를 만나게 되어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다.”며 “젊은 세대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가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대학생 명예기자단이 실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현장 취재 및 기사작성 방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어졌다. 제4기로 선발된 대한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단은 매월 주제에 따라 개인 및 팀 과제로 체육대회 현장 취재와 생활체육 실천하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제4기 명예기자단으로 선발된 조희선 학생은 “다양한 스포츠를 취재할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스포츠7330 캠페인을 통해 재미있고 다양한 아이디어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싶다.”며 활동의지를 밝혔다. 서지은 학생은 “대한체육회의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만큼 전 연령에 걸친 국민들의 체육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자단이 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5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교육 개최



대한체육회는 4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2박 3일간 충남 예산군 호반호텔앤리조트에서 전국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담당자 및 관리매니저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리매니저는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체육시설개방 프로그램”의 기획, 시설관리,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실무자로, 이번 교육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리매니저의 역량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전년도

참가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개요 및 시설 운영관리 우수사례 공유, 학교체육시설 안전관리, 학교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법 강의 등 총 2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 후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 중이다. 현재는 155개(2015년 : 162개, 2016년 : 210개, 2017년 : 172개, 2018년 : 155개, 2019년 : 155개) 학교가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News ● 06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성공적 마무리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제3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지난 17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16개 체육고등학교 학생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개최식은 4월 15일(월) 호텔 농심에서 개최되었으며, 4월 10일(수) 사전경기를 시작으로 17일(수)까지 수영, 펜싱, 육상 등 13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대회 종합우승의 영예는 금메달 43개를 비롯한 총 122개의 메달을 차지한 서울체육고등학교에 돌아갔으며, 경기체육고등학교와 인천체육고등학교가 그 뒤

를 따랐다. 최다관왕으로는 양궁 종목의 안산(광주체고), 체조 종목의 이윤서(서울체고), 류성현(울산체고) 선수가 각각 대회 4관왕에 올랐으며, 그 외에 3관왕 10명, 2관왕 22명 등 많은 선수들이 다관왕을 기록하였다. 또한 참가 선수들은 양궁, 사격, 수영 등의 종목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종합순위 상위 3개 학교 및 최우수 선수(남, 여 각 1명)와 최우수 지도자 1명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선수 2명(남, 여 각 1명)과 우수 지도자에게는 대한체육회장상이 수여된다. 경기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회 홈페이지(<http://bs33.edukor.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는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 체육계 고등학교에서 매년 지역 순환으로 개최하고 있다.

출처 : 대한체육회

스트레스의 과거와 현재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관련 용어 중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이다.

‘팽팽하게 당긴다’는 의미의 라틴어 ‘stringere’에서 기원한 이 단어는 개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힘을 일컫는 물리학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현재는 어떻게 통용되고 있을까?

스트레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알아보자.

STRESS

‘스트레스’라는 말은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물리학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로 인한 몸과 마음의 반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더 많이 이 말을 사용한다. 모든 생명체는 외적인 변화에 대해 필요한 반응을 한다. 즉, 외적인 압박과 그로 인한 인간의 반응, 이 상호작용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이다. 최근에 사용되는 스트레스의 정의는 현대사회에 출현한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한다. 1920년대부터 생명체는 외적인 자극에 대응하여 내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는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 개념을 확대하여,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과학자는 Hans Selye이다.

Hans Selye는 스트레스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체적, 정신적 긴장 상태로 명명하였다. 우리의 몸은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타인과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감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진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인간의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하였다. 물질로 존재하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또는 마음, 감정)을 통합하여 생각한다는 것이 당시의 철학과 종교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했다. 합리적 사고의 아버지인 데카르트조차 마음은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특별히 창조된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그리스인의 이원론적인 관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외적인 환경에 동시에 반응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환경과 문화의 변화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의 과학적 본질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현대인이란 누구인가? 오늘, 즉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들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더 많은가?’보다 ‘이전 세대와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묻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세대가 바뀌고 사회와 문화도 모두 바뀌어 가고 있다. 게다가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다. 항상성의 개념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개체에게 스트레스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는 점이다.

취업에 대한 부담, 직장생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노력, 노년의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아야 하는 일 등이다. 전쟁이나 사고와 같은 위협적인 사건들은 즉각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은 이 변화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은 덜하지만, 지속되는 매일의 스트레스는 느린 속도로 서서히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번 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이 한 예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 사고 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키울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몸은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스트레스이다. 노동한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는 농경 사회에서 점차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식과 정보의 접근은 너무 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다양한 정보는 우리가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다한 정보는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거나 학습된 무기력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SNS를 하며, 우리는 타인과 나의 삶에 대해 끊임없는 비교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경험한다.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타인의 삶을 내 삶과 연결지어 버리고 만다.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있다. 만약 인터넷상에서 ‘헬조선’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 사회에서 이미 내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과거 부두고 신자들이 아무런 건강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큰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주술적 믿음만으로 차례로 사망한 사건은 인간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집단화보다 개인화가 지향되고,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의 양이 더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자칫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양상이 보다 복잡하고, 지속적이고, 때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보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시 스트레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외적인 자극을 극복하기 위한 생명체의 노력이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느끼며 반응한다. 그 자극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에 대한 긴장을 얼마나 유지하거나 받아들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개체를 단련시켜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항할 힘을 만들어 준다. 평소 간과하였던 신체의 건강과 안정된 휴식, 자극적이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인터넷 기사가 아닌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찾아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배드민턴의 세계

라켓과 셔틀콕만 있다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포츠, 배드민턴.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은 안다.
새처럼 날아가는 셔틀콕이, 때로는 쏜살같이 바람을 가르고
때로는 눈송이처럼 하늘하늘 춤을 춘다.
그렇게 낮을 잃고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마력의 종목이 바로 배드민턴이다.
이번 호에서는 많은 이들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
배드민턴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자.

Badminton

Sports

깃털이 달린 공, 즉 셔틀콕을 네트 양편에서 라켓으로 쳐가며 득점을 겨루는 경기인 배드민턴.

언제 어디서나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므로 가장 많이 보급된 라켓 종목이기도 하다.

왜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배드민턴은 1820년 경, 인도의 봄베이 지방에서 성행했던 민속 경기인 푸나(Poona)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처음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공을 손바닥으로 쳐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발전하여 코르크에 새의 깃털을 꽂아서 라켓으로 쳐서 보내는 놀이로 변하였다.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 장교들이 이를 배워 본국으로 돌아와 체계를 잡았다고 여겨진다. 영국 그로스터셔에 거주하는 T.D.보퍼트의 영지인 배드민턴 마을에 있는 그의 별장에서 푸나 게임이 소개되었다. 그리하여 이 경기는 마을의 이름을 따서 배드민턴이라 하게 되었다.

초창기 배드민턴은 귀족계급의 게임으로 대단히 매너가 엄격하여 깃이 높은 셔츠에 저고리를 단정히 입고 실크 모자를 쓴 채 품위 있는 차림으로 게임을 했다고 한다. 이 격조 높은 품위는 지금도 배드민턴 경기의 정신적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엄격한 매너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후 1893년 영국배드민턴협회의 창립과 동시에 규칙이 제정되었고 1899년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어 덴마크, 스웨덴, 서독 등의 유럽 각국과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등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세계적인 경기대회로는 1939년 국제배드민턴연맹의 초대회장 조지 토머스 경이 기증한 토머스컵(THOMAS CUP)남자대회와 H.S 우버 여사가 기증한 컵(UBER CUP)과 세계배드민턴선수권(WORLD CUP)과 전영선수권대회 등이 있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시범종목을 거쳐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 외에도 세계의 각국에서 많은 오픈(OPEN)대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경기가 연중 열리고 있다.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경기가 보급된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배드민턴은 놀이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1957년 비로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조직되면서 경기로서의 배드민턴이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1962년에 배드민턴협회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었으며, 그해 제4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 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1981년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나라의 황선애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 영국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개인단식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배드민턴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리게 되었다. 또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에서 박주봉-김문수 조는 남자복식, 황혜영-정소영 조는 여자복식 경기에서 금메달, 심은정-길영아 조는 동메달, 여자단식의 방수현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하여 명실상부 배드민턴의 세계강국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에서는 혼합복식에서 이용대-이효정 조가 우승하며 그 위상을 드높였다.

배드민턴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신체적 건강 유지다. 배드민턴은 달리기, 도약, 몸의 회전 및 굴곡과 신전으로 이루어져 전신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몸의 형태적인 변화는 물론 기능적인 변화를 가져다준다. 또한 신경계의 발달과 함께 호흡 순환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내장기관을 튼튼하게 한다.

두 번째로 정신적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복잡해지고 기계화된 현대생활은 근원적인 인간의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드민턴의 활동 형태가 달리고 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파괴적 욕구의 해소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맑고 밝은 정신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배드민턴은 네트를 가운데 두고 신체적인 접촉 없이 행하는 운동경기로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신사적인 인간성의 함양에 도움을 준다. 또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가족, 직장 등의 집단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할 수 있어 훌륭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배드민턴은 실내경기이기 때문에 계절에 구애됨이 없고, 좁은 장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운동량을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고 남녀노소에 구애됨이 없다. 또한 레크리에이션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시설과 용구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배드민턴 에티켓

배드민턴은 신사 스포츠라 하여 예절과 매너를 중시하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배드민턴 기술을 배우기 전, 먼저 배드민턴 에티켓에 대해 알아보자.

에티켓 1. 운동복과 실내운동화는 필수

배드민턴은 본래 경기 중 흰색 옷만 입도록 규정이 정해졌을 정도로 예절과 매너를 중시했다.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운동 중에 간혹 청바지나 면바지를 입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일반 운동화 혹은 구두를 신는 이들이 있는데, 경기 중에는 반드시 운동복과 실내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에티켓 2. 인사는 기본

모든 스포츠에서 인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이다. 체육관에 입장하거나 경기 시작 시 상대방 파트너와 인사를 한다. 인사는 보통 평경례 혹은 악수를 하면 된다. 또한 경기 중 실수를 했을 때는 미안함을 꼭 표시하는 것이 좋다.

에티켓 3. 셔틀콕 준비

경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새 셔틀콕을 하나씩 꺼내 놓는다. 셔틀콕이 없을 경우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이다. 경기 도중 셔틀콕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재빨리 셔틀콕을 주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데, 이때 상대방이 받아칠 수 있도록 셔틀콕을 네트 위로 라켓으로 건네준다. 셔틀콕을 손으로 건네거나, 네트 밑으로 던지는 것은 매우 비매너적인 행동이다.

에티켓 4. 자리 정리 및 양보

본인이 머문 자리는 본인이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한 게임을 한 후 다른 회원들이 돌아가며 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한다.

에티켓 5.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기 임하기

심판이 부재일 때, 셔틀콕이 떨어진 쪽 경기자의 판정을 존중하여 따른다. 경기자가 판정을 하는 경우 동호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심적인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경기에 이겼을 때는 서로 칭찬하고 졌을 때는 서로 위로해주며 화합을 도모한다.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배드민턴 용어

➤ **그립(Grip)** 라켓을 잡는 방법으로 웨스턴 그립과 이스턴 그립으로 나뉜다. 웨스턴 그립은 라켓 면이 지면과 평행하도록 핸들을 잡고 이스턴 그립은 라켓 헤드의 측면이 보이도록 핸들을 잡는다.

➤ **네트인(Net in)** 셔틀콕이 네트에 닿고 상대편 코트로 넘어간 경우를 말한다.

➤ **네트플레이(Net Play)** 네트와 가까운 거리에서 셔틀콕을 치는 것을 말한다.

➤ **단식경기(Singles)/복식경기(Doubles)** 1대 1로 겨루는 경기로 단식이라고 부르며, 2대 2로 하는 경기를 복식이라고 한다.

➤ **렛(Let)** 서비스볼이 네트인이나 서포트인이 되었을 때 혹은 불가항력의 사고로 서비스 혹은 리턴하는 데 지장이 있었을 때, 또는 심판원의 선언이 있기 전에 서비스를 한 경우에는 카운트하지 않고 서비스를 다시 하는 것을 뜻한다.

➤ **롱서비스 라인(Long Service Line)** 서비스 구역을 구획하는 선으로, 네트와 평행한 라인 중에서 네트와 먼 라인, 단식과 복식 라인으로 나뉜다.

➤ **백 바운더리 라인(Back Boundary Line)** 코트 뒤쪽의 네트와 평행한 경계선. 직사각형 코트의 짧은 쪽으로 엔드라인과 같다. 단식의 롱 서비스 라인과도 같다.

➤ **사이드라인(Side Line)** 서비스 라인을 구획하는 선으로, 백 바운더리 라인과 수직인 라인, 직사각형 코트의 긴 쪽에 해당하며 단식과 복식 모두 길이가 같다.

➤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 by Side)** 2명이 가로로 늘어서 양옆으로 서는 진의 형태를 말한다.

➤ **서비스라인(Service Line)** 서비스 구역을 구획하는 선으로 네트와 평행하며, 쇼트 서비스 라인과 롱 서비스 라인으로 나뉜다.

➤ **리시브(Receive)** 서비스를 받아치는 것, 리턴이라고도 한다.

➤ **리턴(Return)** 날아온 셔틀콕을 받아치는 것을 말한다.

➤ **매치포인트(Match Point)** 승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1점을 말한다.

➤ **백핸드(Backhand)** 잘 쓰는 손으로 라켓을 쥐었을 때 손등이 상대편을 향하는 타법.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는 것을 말한다.

➤ **보디샷(Bodyshot)** 상대방의 몸 쪽으로 셔틀콕을 보내는 것, 다른 말로 보디어택(Body Attack)이라고 부른다.

➤ **보크(balk)** 서브할 때 상대 선수를 속이려고 방향을 급하게 전환하는 동작이나 작전을 말한다. 규칙 위반으로 서브권을 잃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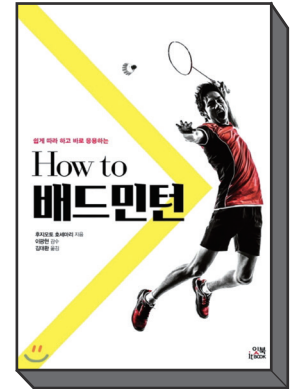


BOOK

How to 배드민턴 지음 | 후지모토 호세마리

쉽게 따라하고 바로 응용하는 배드민턴

그립 잡는 법, 몸을 움직이는 방법, 클리어·스매싱·드라이브·푸시·드롭·커트·헤어핀 등 각종 샷을 하는 방법, 풋 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서비스하는 방법, 단식·복식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배드민턴을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까지.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재 국가대표 꿈나무 코치가 배드민턴 동호인을 위해 일대일 개인 레슨을 한다. 초보자는 중급자로, 중급자는 상급자로... 현재 자신의 실력을 한 단계씩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연습법을 책으로 만나보자.



배드민턴 교과서 지음 | 오호리 히토시

서비스, 클리어, 스매싱을 완성하는 필수 코칭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드민턴은 치기 쉬운 야외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이라도 배드민턴을 배워본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 배드민턴은 경기 규칙이 엄격한 실내 운동이기 때문이다. 경기 용어도 백핸드 서비스, 푸시, 헤어핀 등 생소하고 복잡하며 그립을 잡는 법부터 스윙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숙련된 동호인이든, 입문자이든 실력을 높이고 배드민턴의 진정한 재미를 느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신의 기본기가 어느 수준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배드민턴의 고수가 되는 법을 알려준다.



박주봉의 배드민턴 지음 | 박주봉

초·중급자를 위한 알기 쉬운 배드민턴 레슨

한국이 낳은 배드민턴 신동 박주봉은 배드민턴의 변방인 우리나라를 일약 배드민턴 강국으로 급부상 시킨 인물이다. 노련한 두뇌 플레이와 시속 300km에 육박하는 강스매시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국내 단식 경기 106연승을 이루었으며, 1983년 김문수 선수와 복식조를 이룬 후 약 10년 간 세계 배드민턴의 정상을 유지하며 셔틀콕의 황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셔틀콕의 황제, 박주봉이 초·중급자를 위해 알기 쉽게 배드민턴의 기초를 풀어놓았다.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듭니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은 퇴근 후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지금은 나에게 맞는 운동처방 받는 시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

지금은 주말아침 주민들과 운동하는 시간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지금은 방과 후 스포츠를 배우는 시간
|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유치 성공

2019.11.25-27